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 행 인 이 강 혁
편집인겸 이 장 희
주 간
편 집 장 강 인 숙
외대사문사(☎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 쇄 인 김 영 수

제576호 1992년 3월 31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외대인, 등록금 투쟁 이렇게 생각한다

총학생회와 대학당국간의 7차에 걸친 등록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학생회는 전년도 합의사항마저 무시하고 등록금 협상을 위한 대화 통로조차 차단하는 대학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맞서 총학생회 계좌로의 납부를 실시하여 28일(토)까지 1천여명의 학우들이 총학생회 계좌로 등록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당국은 급기야 지난 25일(수) 1천 8백여명에 달하는 '미등록 제적 예정자'명단을 발표하여 학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최후 등록기간인 27일(금)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제적을 시키겠다라는 전보를 미등록, 총학생회 계좌에 납부한 학우들의 집으로 발송하여 학부모님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학생측과 대학당국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보다는 그 골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등록금 문제가 전외대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진정한 외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번 등록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대학당국 관계자, 직원노조조합장, 동문, 학부모, 학생 등을 만나보았다.

〈편집자〉

강 신 자
〈김성(인문·사학2)군의 어머니〉

내 자식만은 안나섰으면 하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용인캠퍼스 사학과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이다. 그간 등록금 납부문제를 두고 아들녀석에게서 학교상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함께 의논을 한 끝에 총학생회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30일(월)에 등록을 마쳤다.

총학생회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기로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등록금이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18.18% 인상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같은 서민에게 백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엄청나게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만약 총학생회 인상률대로 하면 약 십만원이 인하되는데 십만원이면 아들녀석한달 교통비가 된다. 또 등록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쓰여져야 될텐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다. 학교 오가는 데 하루에 네다섯시간씩 소요되는데도 용인캠퍼스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총학생회로 등록한 학생들을 제적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양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등록을 미루거나 딴 곳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막무가내로 학생들을 제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측의 옳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처사는 교육자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학상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 등록금 문제, 돈에 관련된 문제를 두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않고 학생들을 제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등록금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것 같다.

모든 학부모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따로이 바쁜 일이 있으니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그러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다.

학생들이 반발하고 등록금 총학생회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대학사회는 그 어느곳보다 민주적으로 일이 처리되고 그 속에 젊은 학생들의 용기있고 진취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그렇게 나서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지금 이정도나마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혹시 어떤 불상사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내 자식만은 안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등록금문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할 때만이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박명석
〈영어과 57학번
총동문회 운영이사
단국대 영문학 교수〉

등록금이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가를 명확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우리 외대 후배들이 등록금 인상 때문에 학교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니 가슴이 아픈일이 아닐 수 없다. 등록금 인상 몇푼 때문에 타사학들에 비해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어대학교이므로 우선 외대의 출발이 외국어 교육과 외국 문화에 대한 집중적이고 폭넓은 연구작업에 기치를 두었다. 이 교육목표는 처음에는 성과를 거두었고 대단히 효과적인 듯했다. 그래서 많은 외대 졸업생들이 세계 각처에서 뛰고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당국은 과거 장기간 동안 이 분야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다른 대학에 비해 한반의 학생수도 너무 많고, 언어실습 시설도 태부족이고, 비디오 시설도 미비하며, 외국인 교수수도 학생들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듣기에는 너무나 적은 편이다. 특히, 용인캠퍼스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식으로 기숙사나 교통수단이나 복지 시설이 엉성하기 짝이없다. 사실 말이 대학이지 분필만 가지고 교육을 장사로 아는 일부 학원과 다른 것이 무엇 있단 말인가?

이렇듯 외대가 낮잠자는 동안 다른 대학들은 앞을 다투어 외국어 학과도 다양하게 증설하고 외국어 공부에 학생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도 조성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학들은 몇몇 뜻있는 기업들로부터 몇 십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당국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느 기업에서 무엇을 바라고 그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는가?

등록금 몇푼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당국과 갈등을 벌이면서 그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낙후된 외대의 이미지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보다 뜻이 있는 충정으로 보고싶다. 물론 학생들이 모두 옳다는 얘기만은 아니다. 방법상의 문제는 다소 있고 본다.

하지만 대학당국이 처음부터 총학생회대표와 충분한 의논을 하였더라면 모양새가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등록금이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가를 짚어보아야 한다. 교육의 질이, 학생 복지시설이, 교수나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등등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재단 전입금이 타대학에 비해 얼마나 되며, 외대 발전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까지 자생적인 노력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학교당국이나. 재단이 미워서가 아니라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이 형 승
〈서학·독어2〉

학우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총학 구좌로 납부하는 것

학교측과 학생회 양자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분의 차이를 보고 이번 등무도 예년과 같이 인상분의 삭감 정도로 끝나려니 했다. 하지만 개강후 발전된것 없는 학교 안밖의 모습, 더 열악해진 교통문제, 그리고 불성실한 학교측의 태도를 보면서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당국이 아닌 학생을 수동적으로 끌고 다니려는 학교당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때문에 이번 등무는 예년과 달리 인상분의 문제가 아닌 학생이 학원의 주인이 되는 문제라 생각했고, 일반학우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총학생회 구좌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여겨 등록금을 총학생회 구좌로 납부했다.

이번 등록금 투쟁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의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그것은 학교당국이나 학생, 어느 일방의 입장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대발전 이라는 차원에서 양자가 함께 책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의 등록금 투쟁은 교육재정의 절대적인 확보없이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얼마전 독일어과 과회장이 6일간의 단식을 하면서 "후배들에게는 절대로 봄바람보다 먼저 찾아오는 등무를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숙연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직·간접세로 걷어가는 교육세를 다른 여타의 것으로 유용하지 않고 교육재정으로 활용한다면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이고 한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리라 생각한다.

학교당국도 얼마전부터 학생들을 우롱하는 대자보를 붙이더니 몇일전에는 제적대상자 명단으로 학교에 도배를 하고 집집마다 전보를 보냈다. 학교당국도 더이상 학생들을 격하게 하는 불필요한 폭력을 휘두르기 보다는 1만3천 외대학우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협상에 나와주길 바란다.

그리고 총학생회 역시 몇몇 간부만의 협상이 아닌 학우대중과의 결합속에서 등무 소식을 알려내고 그 속에서 명확한 대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최 재 필
〈서양·이태리어 1〉

이름만 외대지 이름에맞는 특징이나 시설은 미비

굳이 밝히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나는 삼수까지 해서 외대에 들어왔다. 삼수를 하다보니 내 자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방관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등록금 투쟁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옳게 보이지는 않았던게 사실이다. 지나친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감도 일어나지만, "과연 학생들이 학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오늘의 시점에서 등무는 한낱 대학생들의 고집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 선배들의 요청으로 자의반타의반 참가하게된 임시총회를 통해 나는 이번 등록금 문제에 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학교의 18.18%가 무당한지, 학생측의 4.86%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재단전입금이 무엇인지를 총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환경의 열악함이 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전기대에 떨어지고 패배의식으로 가득 찼지만 외대를 붙고는 커다란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외대는 학교의 특징이 뚜렷하고 타대학보다는 좋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주일만의 학교생활만으로도 적잖은 실망을 가지고 말았다. 수업시간은 많으나 각 시간이 뚜렷한 특징을 잡지 못하고 그게 그것인 전공수업과 낙후된 학생복지시설등 이름만 외대지 그 이름에 걸맞는 특징이나 시설은 타대학에 비해서도 너무 미비한듯하다. 타대학이 건물을 증축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등 발전을 서두르고 있는 지금 아무 발전이 없어 보이는 우리학교는 점점 멀리고 있다는 감이 든다. 이러다가는 3류대로 떨어지기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평생 따라다닐 출신학교의 꼬리표를 3류로 갖고 싶지는 않다.

재단측이 비리가 있는지 돈이 있으면서도 없는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는지는 분명한 판단이 서질 않지만 학교발전에의 성의와 애정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재단이라면 학교가 돈벌이의 목적이 아닌 이상에야 물러나야 됨이 당연한 것이 아닐런지….

나는 우리 과를, 나의 동기를, 선배님들을 사랑하고 외대를 사랑한다. 단순히 는 몇 푼 깍자는 문제가 아닌, 외대 발전을 위한 탄탄한 초석이 될 등무가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대학당국의 입장

교육부에 학적 변동사항 보고, 행정적 업무 마감

학교당국은 '91년 12월26일에 등록금을 결정 고지하였다.

학교는 예산·결산 자문위원회(학교기관)와 총학생회 산하 예산편성소위원회로 하여금 등록금 인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총학생회가 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관계로 그 실현이 불가능했다. 이에 학교는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나온 등록금안을 교수회의에 부쳐 확정하였고, 이를 교수협의회, 노조, 총학생회 대표에게 통보하였다.

뒤늦게 총학생회는 금년도 추가등록 시점을 기하여 별도 계좌를 설정, 일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았다.

최고 의결기구인 교수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전체 교수일동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학생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학칙 위반 사항이며 해당 학생은 미등록 제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학생들은 이에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러한 교수회의의 결의사항은 학생들의 행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의 학사 운영 방향을 구속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금명간 교육부에 학적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으로서 모든 행정적인 업무가 마감된다는 점을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 건
〈직원노동조합장〉

등록금과 대학재정의 관계는?

매년 새학기초가 되면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사립대학의 등록금인상과 관련한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와의 마찰은 이제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서는 대학에서의 발교육적, 비생산적인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 대학의 질을 얼마만큼 떨어뜨리고 대학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인가를 대학인은 물론 정부(교육부)도 깨달아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대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의 등록금인상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은 결국은 총학생회의 등록금 납부 별도구좌 개설로 악화되어 그 심각성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외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해결의 실타래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불신이 만연한 환경속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인들도 일정하게 불신의 환경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 외대는 어떠한가? 결코 다른 타대학과의 비교를 무시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사학을 운영하는 법인(재단)에 있어서는 대학의 제정에 원칭한 기준의 역한을 감당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외대도 용인캠퍼스건설에 많은 부채를 해있고 현재에도 외대마스터플랜 속에서 계속적인 부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가 훌륭한 생각을 모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대학은 궁극적으로는 국민(국가)의 것이므로 사학의 교육재정 지원을 과감히 확충하여 대학의 국가책임을 다하여야 한 것이다.

지 면 안 내

3면:대학당국, 25일 제적명단 발표
6면:정치권의 질서재편
8면:각 캠퍼스별 학생식당 설문조사
9면:불법, 탈법 선거 양태 비리 분석
12면:연재수필 〈뒷이야기〉
—두뇌의 업, 손의무

사설

대학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

흔히들 대학을 '살아펴는 양심'이라고 말한다.

이말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채 한 사회에서 대학을 연상시키는 상징어이며 나아가 행동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또한 이말은 단순히 대학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꾼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맡는 대학당국의 '양심'을 역설하는 말일게다.

그러나 지난 6차례에 걸친 등록금대책회의 과정과 25일(수)행해진 '학생제적 경고조치'를 보고있노라면 본교 대학 당국에대한 교육자적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나 학생제적을 운운하는 모습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대학당국은 25일(수) 용인캠퍼스 교양학관 공고란에 1천8백여명을 대상자로 한 미등록 제적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또 26일(목)에는 대상 학생들의 집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3월27일(금)까지 등록정리요망'이란 내용의 전보를 발송했다.

이에대해 총학생회 쪽은 "등록금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경우 문교부 등록자 보고일인 4월15일(수) 총학생회 구파로 남부한 1천명의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분할 등록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학인의 교육을 맡고있는 대학당국이 그간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1천8백여명 학생의 제적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교육적이지 않은가?

"아무런 이유없이 등록을 미루거나 딴곳에 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등록금 책정과정에 문의가 있어 발생한 문제임에도 학교가 막무가내로 학생을 제적 시키겠다는 처사는 결코 교육적이라고 볼수 없다"는 한 학부모의 얘기가 생각난다.

이번 사태는 결코 감정상으로나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속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대화에 나설때 대립은 화합으로, 나아가 의대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때만이 대학당국은 교육의 양심으로 서고 대학은 이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 뛸수 있기 때문이다.

도둑맞은 주권 되찾아야 한다

해마다 선거가 끝나면 부정부패 선거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럽다. 이번 14대 총선에서도 금권, 관권 부정선거 표출의 양태나 그 주범이 예년의 선거에 비해 불 매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군 부재자 투표의 경우는 지금이 과연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90년대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정도이다.

지난 22일(일) 육군 9사단 이지문 중위의 군 부재가 투표 부정 사례에 대한 폭로 이후 그것이 사설임을 입증하는 제보들이 공명선거실천운동연합이 마련한 고발창구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군대에서는 아직도 주권의 행사가 상부의 명령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듯하다. 기호 1번 찍으라는 정신교육의 수준을 넘어 인사계가 보는 앞에서 공개투표를 할 것을 강요하고, 투표 봉투를 일일이 개봉하여 집권여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명령 불복종이라며 앞으로 군 생활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표가 얼마나 나왔는가에 따라 지휘관의 능력을 체점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결코 소설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현실을 철저히 해부하고, 그 진의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국가가 당연히 앞장서서 밝히내야 한다. 그런데 헌정권은 투표함 보존 신청이나 선거 무효 소송의 속출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은 뭣친 이고, 대선구도를 짜는데 여념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힘의 위력을 확인하였다.

유권자의 직극적인 선거 참여로 총선 공간을 통해 집권여당의 4년을 심판하고, 민주의 도둑을 잡아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범인을 잡아야만 한다.

흡산의 소리

여당의 이미지 선전을 위한 우회적 방법

공명선거를 바라는 목소리가 무척이나 높았던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내렸다. 이번 14대 총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공명선거의 외침이 무색하게도 공명치 못한 여러사건들이 저질러 졌고 그런 사실들이 하나 둘씩 들춰지고 있고 모든 언론의 촉각들도 바로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며칠전 민자당 소속 이순재 의원의 TV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의 대사가 은근히 선거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었다. 특정후보가 선거때에 맞추어 대중에게 호소력이 높은 TV를 통해 극중에서 마치 선거유세하듯이 말한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 비판에 동의하는 입장인 나는 24일 총선거날에 MBC TV를 통해 반영된 만화영화 '꿀벌의 친구'를 보고 이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몇 자 적어본다.

이 '꿀벌의 친구'의 줄거리는 고아인 한 아이가 갖은 고생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까지 만나서 행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만화영화내의 인물이 사용하는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라는 점이다. 집권여당의 지지기반이 경상도이고 여당의 중심인물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그리고 많은 날중에 하필 총선거(24일)때, 그것도 이제 막 투표하려고 나서기 시작하는 시간인 오전 10시30분경에 방영된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하필 경상도 사투리인가?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텐데.

공명선거를 하자고 떠들어 대면서 은근히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즐거리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잘린 뒤 어려운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발전해온것으로 비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일치일까? 또,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는 것은 집권여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해야만 우리사회가 발전하게 될거라는 암시를 주는 것은 아닐까? 집권여당의 이제껏 저지른 과오에 대한 이미지 변신의 우회적방법은 아닐까? 아무래도 의혹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중을 상대로, 어느 한 편에도 치우침없는 언론기관으로써의 태도가 아쉽게 느껴진다. 대중을 상대로 한 언론기관에게 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공정한 보도와 기획태도가 아쉽게만 느껴진다.

〈동양·이란어1 김경철〉

당당한 진짜 대학생이 되는 용기

"너네 학교애들이 식당에서 또 난동을 부렸다면서?"

며칠전 집에 내려갔을때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신문에 났더라. 너석들 그 외대가 사회에서 인식이 별로 안좋다. 정원식 총리한테도 몹쓸짓을 하더나…저희들 은사인데 말이야."

문득 신입생수련회때 그 사건의 진실을 진지하게 얘기하던 선배들의 목소리와, 학교에서 읽었던 유인물들의 글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어느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 아니 알려고 하시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구요."

하며 학교에서 알게된 사실들을 말씀 드리고 싶었지만 정작 내입에서 나온 말은.

"그랬단 말은 못 들었는데요. 학교 식당밥값이 올라서 불매운동같은건 하지만요…"

라는 소극적인 것들이었다.

'겨우 200원'오른걸 갖고 뭔 그러냐는 아버지의 말씀에도 난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했고, 말을 외지에 혼자 보내놓고 쓸데없는데 돌질 지 않았나 내심 걱정하시던 아버지는 그것에 오히려 안심하셨는지 더 이상은 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로서는 스스로 무척이나 부끄러웠다. 소위 '외대인'으로서 외대정문을 드나든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정작 나자신은 아직도 고등학교때의 생각과 소극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예 관심이 없었다거나 전혀 몰랐다면 차라리 덜 창피했을 것이다. 그저 주워들기만 하고 벽보도 건성건성 읽어가면서 '응~그런거었구나' 잠깐동안의 끄덕임으로 지나쳤던 나의 태도는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것인가. 최소한 나의 부모님께는 내가 알고 깨달은 사실들을 자신있고 떳떳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게 나의 적지만 소중한—어쩜 가장 이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꼭 거쳐야할—책임이 아닐까…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무이면서, 앞서서 땀흘리고 희생하는 선배들에 대한 나의 성의일게다.

이제 그만 빠져나와야 한다

3년이란 시간동안 시험과, 무의미한 학습의 반복과 짜여진 일상속에서 '소극'과 '모른체하는것'으로나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그물로부터 이제는 나와야 할 때다.

그렇게 하는것이야말로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며 내가 그토록 꿈꾸었던 '진리에의 열망'과 '진실에 대한 용기'를 지닌 진짜 대학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므로…

〈동양·일어1 김지은〉

우리 힘모아 우리의 지혜의 열쇠로 열어내지요 —외도리—

열려라 참깨! —무역 92—
동원 참치 캔따개 —경제92—
열쇠집 아저씨에게 천상 부탁해야지 —Hu91—
맥가이버, 맥케이와 순들이 아빠를 부르자! —S광—
총장님 열쇠 좀 빌려주세요 —ph상—
열쇠는 무슨 40인의 도적이 잔뜩 쌓은 재단 창고의 열쇠는 "열려라 참깨" —알라딘90—
열쇠는 청와대 노가리와 재단의 한 아줌마가 가지고 있지? —AF87—
내가 안가져갔어. 나 아니야 —영어과 떨빡—
열쇠 성능 무제한!! —테크노피아를 지향하는 한 학우—
찾았어! 이제 돌리기만 하면돼 —중—

백지 대자보

주제:열리지 않는 재단창고의 열쇠는…

재단 창고 여는법:재단과 국가와 학생이 모두 열쇠를 소유하고 창고를 열때는 3자가 모두 참가하여 동시에 돌려야 열린다 —MZS—

재단창고는 민주정부의 TNT로 폭파시켜 버리겠다. —MZS 양포장—
정 열리지 않으면 할 수 없지…, 부셔야지. —外英 한 학우—
외대 사랑의 가슴으로 창고문을 녹여 버리자 —달—
열쇠번호는 1818이 아니라 486이다! —차—
미네르바 동산에 영원히 파묻혀 간직될 것이다 —BA科—
부숴버려 —과피자—
열쇠는 아예 없었다! —열쇠공—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 —원—

明水塘 명수당

강덕수
〈노어과 교수〉

현실을 반역하는 꿈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말의 뜻에는 꿈에 관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생각한다"는 "꿈꾼다"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꿈은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꿈을 꾸며, 이 꿈에 따라 개개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대단한 공상가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그리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다. 물론 꿈도 꿈 나름이듯이, 공상가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는 하다. 그러나 꿈도 자주 꾸게 되면, 그중 하나쯤 괜찮은 것도 있게 마련이 아니겠는가?

어려서부터 나는 방구석에 놓인 앉은뱅이 책상 앞에 앉아 꿈꾸기를 잘하았다. 대평양 한 가운데 작은 섬에 난파한 다음, 원주민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원주민과 함께 살며 문명을 가르친다. 그리고 마침내는 분열되어 있는 부족들을 통합하고 그 지도자가 되어 그곳의 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을 교육시켜 문명세계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 부족 추장의 어여쁜 딸을 색시로 맞는다. 부끄럽지만 중학교 시절 꾸던 꿈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더이상 이런 꿈을 가슴 속에 남겨 둘 수 없었다. 하숙집에서는 일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판으로 매주를 쑨다해도 믿어 줄 만큼 신임을 얻었다. 학교에서는 반장으로서, 모범생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꽉 짜여진 시간표와 시험이라는 제도로 모든것이 얽매이진 학교는 꿈이 많아야 할 소년의 가슴을 텅비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나는 사랑하는 꿈 대신 미워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비로서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꿈을 미래에의 지평표로 삼을 줄 알게 되었다. 아만국의 추장이 되는 그런 낭만적 공상도 아니고, 현실을 미워하고 도피하려는 꿈도 아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 꿈은 바로 반역을 위한 꿈이었다. 현실 속에 뛰어들어 그 현실 속에 소모되어 가기보다, 현실을 뛰어 넘어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꿈이었다. 그러나 꿈은 꿈이어야 하었다. 그 꿈 속에 자신의 존재가 함몰되어서는 안되었다. 더구나 그 꿈이 현실이어서도 안되었다. 꿈은 오늘의 현실에서 자라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세계는 10년 뒤의 현실이어야 하었다. 그러자면 그 꿈은 오늘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었다. 그래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노어를 배우면서도 즐거웠다. 노어 공부를 조롱하는 소리에도 웃을 수 있었다. 시국이 이지러워 젊은 피를 요구하는 권유가 있었을 때 고개를 흔들며 "나는 비겁자가 아니다"라고 답할 수도 있었다.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해 점심을 그냥 넘긴 날에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토론 하나를 구하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자취방에 누워있던 날에도 우울하지 않았다. 교실에 들어가기 싫은 화창한 봄날 풀밭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외국어대학을 만최주는 철학이 무엇이며 나아가는 이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흔들면서도 10년 뒤에 찾아 올 꿈을 믿었기 때문에 지 새월이 지나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 어디서 만날 것인가를 자문해 보곤 하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 교실에서 그리고 교정에서 만나는 우리의 학생들은 모두들 힘에 차있고, 진지하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모두들 열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웬지 불안해 보인다. 조급해 보인다. 너무 현실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끄러운 바깥 세상의 정치판 유세장에서 들어 앉은 학생들의 모습, 등록금 문제로 인해 들어 내놓인 학교 집기 더미, 등록금을 스스로 면했다고 임의로 설정한 학생회 계좌…

모교의 교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또다른 꿈을 꾸지 않을 수 없다. 20년 전에 꿈을 꾸었던 것처럼 오늘은 또다른 10년 후의 꿈을 꾼다. 현실을 다시 반역하는 꿈, 그 꿈 속에서나마 오늘의 현실을 이겨본다. 그리고 꿈 속에서 틀림없이 찾아올 내일을 준비한다. 학교라는 곳은 오늘을 위한 곳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곳이 아닌가? 그리고 학생이란 내일을 위한 우리의 자원이 아닌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학생들과 오늘의 현실을 내일의 미래로 던져 버리는 꿈을 함께 꾸어 보고 싶다. 그 속에서 오늘을 반역하면서 내일을 증설히 가꾸고 싶다.

공 고

제목:B형 간염검사

본 보건실에서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건강관리목적으로 B형 간염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일 시: 서울캠퍼스 검사—4월2일(목), 3일(금)(9:00—16:30)
   용인캠퍼스 검사—4월13일(월), 14일(화)(10:00—17:00)
   검사결과—4월13일(월), 14일(화)
2. 대 상 자: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
3. 금 액: 검사료—1천4백원
4. 지정의뢰기간: 한국 건강관리협회
5. 실시장소: 보건실
6. 신청방법: 검사를 희망하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3월31일(화), 4월1일(수)까지 보건실에 신청바랍니다.(신청시 검사료 납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보건실—

韓國外國語大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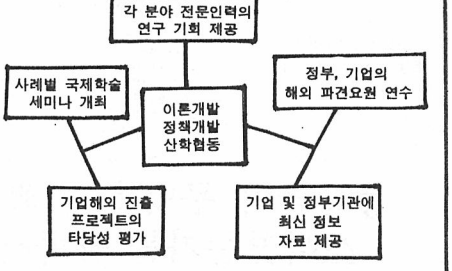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설립취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세계 각지역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학 전문 연구기관인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주요사업

1. 국제정세 변화 동향과 연계하여 특정 지역 및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변동 상황 분석.
2. 각 국가의 언어, 문화 및 역사등의 연구.
3. 대학, 기업, 정부간의 정보자료 협의체구축 및 연구결과의 제공.
4. 해외 파견 요원에 대한 중·단기 연수 실시.



기부방법

1. 개인기부 : 1구좌당 1만원(동문, 학부모, 교직원, 사회인사, 학생 등)
2. 단체기부 : 1구좌당 100만원(기업, 기타 회사 법인 등 단체)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후원회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발 전 후 원 회 사 무 국
(전화 961—4387, 외대 이문캠퍼스 연수원 301호)

대학당국, 25일 제적명단 발표

미등록 1천8백여명 중 60% 총학 납부

오는 4월10일까지는 제적조치 어려울 듯

등록금협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서울·용인캠퍼스 총학생회로의 계좌납부가 28일(토)까지 서울캠퍼스 6백20여명, 용인캠퍼스 4백50여명 등 총 1천7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당국은 이번 등록금의 총학생회로의 납부를 저지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20일(금)까지 미등록자 전원이 납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5일(수)에는 서울캠퍼스 1천여명과 용인캠퍼스 8백29명 등에 대한 "미등록제적 대상자"를 발표하고 각 가정으로 전보문을 통해 27일(금)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제적됨을 통보했다. 하지만 대학당국의 통보이후 미등록한 학생들이 총학생회 계좌로 2백50여명 가량이 더 늘어남으로써 대학당국의 '입포식 위협'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총학생회측도 25일 대학당국의 강경입장 표명과 각 가정의 전보발송으로 인하여 그동안 학생회로 납부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양다리 걸치기'식으로 대학당국에도 등록함으로써 현재 집계된 학생수 중 상당수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대학당국의 입장이 표명된 25일을 기점으로 학생측에서 그동안 실행해온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자 대학당국이 곧바로 학생들에 대한 개인실득작업을 실시한 것은 대학당국도 1천8백여명에 이르는 미등록학생들을 제적조치 한다는 것은 자칫 더 큰 학내소요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예측에서 나온 방안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대학당국은 기존의 방침을 수정하여 오는 4월10일(수)까지는 등록납부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15일(수)까지는 제적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당국이 납부기간을 4월로 연기함으로써 학생측의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목되고 있다.

용인캠퍼스는 이에 따라 어제(30일) 비상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각 학과 학생회장 중 일부가 앞으로의 등록금협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25일 대학당국의 발표에 대해 총학생회가 강경 항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나 대체적으로 오늘(31일) '등록금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학생총회' 개최에 합의했다.

서울캠퍼스도 1천여명의 미등록학생에 대해 대학당국의 전보에 응수하여 30일부터 총학생회 명의의 서신을 발송하고 각 가정으로의 학부모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오늘(31일)은 앞으로의 등록금 투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시 우리의 투쟁을 시작하자'는 제목으로 전체간부총회를 개최한다.

결국 이번 등록금협상은 학생측과 대학당국 사이의 협상자리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워졌다.

기본적으로 대학당국은 학생측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이고 학생측은 대학당국만을 협상자로 내세우고 있는 재단측과 접촉하기에는 대학당국 설득부터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 4월10일(금)로 정해져 있는 '92년 1학기 재학생 교육부 보고'를 앞두고 대학당국과 학생대표측은 더 많은 협상자리가 필요하게 됐다. 이미 대학당국은 6차까지의 협상을 통해 등록금 퍼센트를 낮추자는 의견과 학내복지문제를 집중논의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생측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단의 전입금을 확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부에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학원주체가 함께 공동대처해 나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 열렸던 서울캠퍼스 '심야토론회'에서 제기된 '장년 의대발전후원회'(가칭) 사업방향 제시와 용인캠퍼스 학생요구안 '왕산발전추진위원회'(가칭)의 건설은 지난한 등록금투쟁을 올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본교에 연관된 모든 이들이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앞으로의 등록금책정 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제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영환 기자〉

지난 26일(목) 열린 '92년도 단체협약' 3차 회의는 노조측 단체협약안 중 반이상이 대학당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3차단협, 논의 진전없이 난항

노조, 조합원총회 열어 단체행동도 고려 중

'92년도 단체협약'을 위한 대학당국과 직원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2일(목)2차교섭때 전문부터 18조까지의 조항에대해 검토한것에 이어 26일(목)개최된 제3차 교섭에서는 19조부터 끝장인 14장 보칙까지(5장 임금에 관한 부분제외)논의를 마쳤다.

이번 3차교섭에서는 쟁점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보다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부분은 쟁점사안으로 남겨두고 합의되는 내용만 문과시킴으로써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중 반이상의 조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체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대해 직원노조 장건(출판부 주임)조합장은 "올해는 대학당국이 직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면서 대학당국이 실질적으로 90년 당시의 단체협약 내용보다 후퇴한 입장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것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대학당국은 인사에 관한 조항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측은 인사에 대해 "지금까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대우가 다소있었다"며 90년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직원인사위원회를 조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2/3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직원의 참여속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대학당국은 90년 단체협약 내용인 직원인사 위원회 구성부분을 삭제하는 등 총24개조로 되어있는 인사에 관한 내용을 "인사와 경영에 관한 부분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총4개의 조항으로 축소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측이 올해 단체협약안 제75조와 76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근속수당지급과 저녁학자금 지급에 대해서도 대학당국은 이에대한 삭제를 주장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한편 이러한 대학당국의 태도에 대해 강 조합장은 "대학당국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온다면 학교측과 조합의 단체협약안을 가지고 조합원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단체행동을 시도할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후 '92년 단체협약을 둘러싼 대학당국과 직원노조 측의 행보가 주목된다.

교통소위, 해결점없이 난항

막차시간만 조정…등투연관해 해결모색

용인캠퍼스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측 교통대책위원회(위원장 백청수, 물리·4)와 이창복(독일어과)부총장, 양승윤(마인이과)총무처장 사이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교통소위원회'가 두차례의 일정변경 끝에 지난 27일(금) 부총장실에서 회의가 제기됐다.

이날 학생측은 △동서울 배차시간 제조정 △113번 좌석버스의 모현까지 노선연장 △하교 막차시간 연장 △학내-모현간 차비조정 △학교 직영버스 10대 구입에 대해 대학당국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이창복 부총장은 이들 학생요구안에 대해서 이렇다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을 남겨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실정이다.

학생측의 요구안을 살펴보면 △동서울 배차시간의 경우 현재 동서울-학교간에 14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0대만을 운행할 때가 많아, 학생들의 통학소요시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입자와 대학당국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113번 좌석버스 노선연장의 경우 현재 동서울에서 광주까지 운행되고 있는 113번 좌석버스를 모현까지 노선을 연장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하게 통학노선을 사용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학내-모현간 차비조정문제는 기존의 시내버스요금 적용을 완화하여 150원대로 인하 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직영버스 10대 구입은 재단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정원금을 확충하여 직영버스 10대를 구입, 기존의 동서울노선을 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대학당국이 학내 운수회사를 설립하여, 이의 실행을 위해서 올해 등록금협상에서 문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학생측 요구안에 대해 대학당국은 하교 막차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어제(30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을 연장했다. 그러나 학교 직영버스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구입비 이외에도 운영비, 인건비 등의 문제점을 들으면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학생측 교통대책위원회는 "대학당국이 관리능력의 부족 등을 들어 몇대를 증차하여 '지입제로 하자'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용인캠퍼스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며 "등록금협상과정에서 대학당국이 학생요구안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받아들이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이번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측과 대학당국과의 협의는 등록금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하려는 대학당국과 재단의 전입금 확충만이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학생측의 입장사이에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 등록금협상의 진행에 따라 문제의 해결점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복위, 대학당국과 마찰

자판기 계약권 문제로 난항

대학당국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자판기 계약권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내 자판기 계약권은 작년 2학기 교육부의 지시사항이라며 대학당국이 회수를 해 현재는 계약권을 대학당국이 가지고 총학생회가 배서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학복위쪽은 지난 3월 초부터 자판기 내용물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자판기 계약권을 다시 학생회로 넘겨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함께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금) 대학당국이 배서자인 학생회쪽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판기 계약금 전액(2천6백만원)을 업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복위쪽은 "대학당국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채 배서인도 모르는 사이에 업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이후 학생요구안에 이문제를 포함시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의자

'지도' 허울에 갇힌 언론

▲대학언론이 탄압받고 있다. 지난해 6·3 이후 탄생한 학인대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학원자주 탄압의 눈초리가 대학언론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는 밤에 안들고 성미에 거슬리면 가차없이 언론매체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세종학보가 그러했고 서강학보, 홍대신문, 효대학보, 한대신문 등 현재 제작중지 상태에 있는 대학신문이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다. 입부터 막아놓고 보자는 이러한 조치는 '교육적 측면에서'라는 미명까지 쓰고 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하라는 속담이 있다.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지고 자물쇠마저 채워져 있는 제도언론들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까지 책임지고 바른 말을 해야하는 대학언론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정론직필의 순수를 지키려는 대학신문을 비뚤어진 입으로 전락시키려는 마찰들이 요즘 더더욱 빈번하고 노골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청년학도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로 진행되고 있는 등무와 연이은 선거, 우리 사회의 제반 상황들이 대학신문을 할 말이 많게 만들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대학신문의 기능은 여러가지로 얘기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비판감시의 기능을 꼽을 수 있다. 대학당국과 교육부가 대학신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바로 이 기능 때문이다. 정의로운 대학인은 불의를 보고 비판할 줄 알며, 이 시대의 참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순점과 허구성들을 지적해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진보적 주장들을 실어야 하는 대학신문에서 특정인이 비판감시 기능을 앗아간다는 것은 자주언론을 수호하는 호랑이의 이빨과 알발톱을 또각또각 잘라내 겠다는 심산이다.

▲편집자율권, 이것이야말로 언론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신문인 기자에 대한 교수의 '지도'라는 허울은 대학신문을 학교홍보지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그릇된 의도일 뿐이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표현의 자유와 자주언론에의 갈망은 비록 지금은 고문당하고 있지만 대학신문을 한층 싱숙시키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충미〉

대학당국의 미등록 제적발표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협박일 뿐, 우리의 등록금 투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민주화와 학원자주의 장래를 좌우하는 분수령이었던 14대 총선에서 민자당 정권의 사상유례없는 부정탈법선거를 뚫고 여소야대 정국을 창출해내는 승리를 맞이하였습니다. 총선투쟁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단결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이기에 우리학우 1천여명이 총학생회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제적의 위협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애국외대 1만3천 학우중 누가 등록금 투쟁을 반대합니까?

학교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는 학우가 없고 모든 외대학우들이 외대 참주인으로 우뚝서고 있습니다.

학교측이 만들어 내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학생 요구안은 전체 학생의 요구를 모아 작성한 것이기에 총학생회는 우리의 요구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이며 학우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따르며 끝까지 학우여러분들을 책임 질 것입니다.

〈이문·왕산 총학생회〉

제576호 1992년 3월 31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민족대단결의 실현 한반도 통일

한반도 평화조성 분단체제 극복

글싣는 차례

1.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2.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
3. 통일운동의 과제와 전망
4. 보론—동·서독 통일과정과 남북통일의 관계

김 창 수
〈평화연구소 연구원〉

통일운동의 과제와 방향

남북합의서 채택 이후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이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급변하면서 통일운동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한편 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92년정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이룩하는 문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진영에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현시기에 통일운동의 대중화가 중요한 과제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정부와 남한민족민주운동진영의 대립이 과거와 다른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의 와해 이후 남한정권과 자본은 과거와는 달리 공세적인 통일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소가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과는 다르다. 한국정부와 자본도 냉전체제의 해체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정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미국의 영향력 강화로 체제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6공화국 정부가 민주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민주정부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높게 표현한다고 하여 통일세력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민중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민주화를 표방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미군철수, 군축,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거론하지 않는 정부를 통일세력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국시가 반공이 아닌 통일이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은 변하고 있다.

통일운동은 평화적 환경조성과 실제로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통일되어 있다.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정권담당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비록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남한의 당국과 투쟁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조성의 과정에서는 양쪽 당국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남한 당국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적어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역할은 조성된 환경을 바탕으로 실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문제는 당국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국자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있다.

따라서 당국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일운동의 대중화가 절실한 것이다.

둘째, 실제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살핀 것처럼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 마련이 그 역할이다. 실제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민중이 주체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통일을 그만큼 앞당긴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통일이 민중과 민족의 이익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민중이 통일의 주체로서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정부는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마저도 소홀히 할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고양되고 정부도 더 이상 통일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합의서가 채택되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제 통일운동이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정부는 합의서 이행조차도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활용할 것이다.

즉 통일환경조성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조차도 민중진영의 견인이 없을 경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환경조성과 실제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은 통일되어 있다.

실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실현하고 그 후속조치를 마련하며 법민족적으로 통일의 경로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운동의 민중적 전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2)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 확립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막상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통일의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3원칙이 가지는 의미가 희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은 통일의 과정까지 변함없는 원칙이다.

이러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도 적용된다. 합의서 채택이후 3원칙이 여전히 통일운동의 과제로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가 발전하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분단은 민족이 자주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이 고양되면 될수록 민족자주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합의서 채택 이후 주한미군을 주둔할 계획인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환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합의서 채택 이후 민족자주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정부는 여러차례 주한미군이 2천년대 이후까지 주둔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91년 11월에 열린 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92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문제, 즉 2천년대 이후까지 주둔이냐, 통일이전까지 단계적 철수냐의 문제는 미국과 통일운동진영의 첨예한 대립점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군기지 지역주민들이 기지이전요구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전시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는 이러한 대립을 가속화시킬 조점이다.

둘째, 합의서 채택이후 평화문제 해결의 객관적 조건이 성숙하였다.

평화문제 해결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평화는 통일을 위한 평화이다. 평화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통일의 조건 성숙을 뜻한다. 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군축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남북한은 평화문제를 부인할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절차나 방법에서는 의견대립이 계속될 것이다.

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군축을 약속하였으므로 그동안 상대방의 침략을 전제로 형성된 법적 제도적 장치나 군사력 증강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한다. 합의서 채택 이후야말로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다.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가침을 전제로한 남북한의 군축실현이 중요하다. 군비경쟁의 부필요성은 이미 사회각계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91년의 국방비 삭감에 대한 여론형성이나 14대 총선에서 군복무기간단축과 예비군 폐지가 각당의 공약으로 제기된 것이 그 예이다

세째, 민족적 통일일기의 고양을 조국통일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합의서 채택은 온 민족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도 통일에 대해서 허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합의서 채택은 통일을 가능한 것으로 민족구성원에게 심어주었다. 따라서 전민족적인 관심과 희망을 모아내는 민족대단결의 정신은 더욱 중요해진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민족 구성원 대부분의 생각이다. 통일과정에는 이러한 민족공동의 이해와 요구가 있다.

3)범민족적 통일방안 마련

통일은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통일의 방법과 경로를 통일주체가 범민족적 차원에서 합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이상 통일방안은 남북관계의 최대 쟁점이될 것이다.

통일의 조건이 한걸 성숙해진 이상 통일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운동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통일방안 마련을 통하여 통일의 성격과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민족발전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통일방안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사실상 이뤄게된다. 따라서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의 성격과 방법,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가 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민족 사이에는 전쟁에 의한 통일은 안된다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이러한 민족의식에 바탕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통일방안 마련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역시 이 과정에서도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문제가 된다. 통일방안 마련과 민중적인 통일운동 역시 상호침투하는 관계이다.

4)맺음말

통일운동진영이 결코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의 암흑한 정세이다. 그러나 통일문제의 발전을 부인한다면 이 역시 정세에 조응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기를 민중운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결코전 이후의 암흑한 시기에 남과 북은 합의서를 채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제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정부차원에서 합의서 정신에 따라 정치, 군사, 교류협력의 각 영역에서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견인하고, 민중적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인한 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방안 마련등이 92년 통일운동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 미국과 통일운동 진영의 첨예한 대립점

통일방안 마련으로 통일의 성격·통일조국의 청사진 제공

4월의 문화달력

물소리는 모두 다르다!

물소리
여러분은 몇 가지의 물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옛날 어느 선비는 똑같은 강을 아홉번 건넜던 체험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두려웠을 때는…
내가 평온했을 때는…"
그 선비는 하루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너면서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하찮은 잠풀에서도 여러가지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감도는 4월
캠퍼스의 4월은
색다른 체험을 위한 발상 대전환의 시간입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행사를 알리기 위해 現代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본란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달 25일까지 現代그룹 文化室(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3347)로 알려주시면 성실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現代

연 연극 무 무용 전 전시 행 행사 음 음악 영 영화 공 공연 기 기타

한국산업연구소의 "선거·의회 정치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한 발표회 정리

총선 이후 민주화 운동의 방향

계급적 인식으로 선거·의회 정치에 참여해야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사회변혁운동에 기여

총선을 계기로 선거에 대한 계급적 인식과 사회변혁에 대한 과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사진:말지〉

14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치루어졌다. 그것은 역사상 유래없는 최대의 부정선거 혐태들이 민자당의 관권·금권개입 언론조작등 온갖 수단이 동원되어 자절려 진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3·24 총선은 다소나마 집권당에 대한 시민저항의식이 반영된 엄중한 심판대였다. 비록 민중당의 참패와 제 민국민당의 예상외의 득세라는 결과가 뒷어치기는 했지만 3당 합당 등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있던 민자당에게 패배의 쓴맛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선거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당에 의해 조장된 국민의 정치적 허무주의·지역주의의 벽이 얼마간 허물어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라는 제도가 국민에게 뿐 아니라 집권세력에게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식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토대위에서 사회변혁에 있어 선거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향후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현 정세에 부합되는 연구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 28일 (토) '한국산업사회연구소'에서는 "제14대 총선결과에 대한 평가 및 선거와 의회정치에 대한 인식전환의 문제제기"라는 주제로 한국산업사회 연구실에서 공동 월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발제를 맡은 역사문제 연구소의 김동춘(서울대 박사과정)씨의 발표가 주된 내용의 바탕을 이루었다. 각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강정구(동국대)교수, 유관부(한림대)교수, 장하진(전남대)교수등 약 10인 정도의 참가인들도 발제내용의 범주에서 가볍게 토론을 이루어 냈다.

발제를 하게된 김동춘씨는 전반 어만이 유일한 선거변혁과 정치권 심판의 기제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극히 왜곡되고 형식만 갖춘 선거제도와 의회제도는 대중의 정치활동을 일원화시키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김동춘씨의 선거에 관한 발제는 합법적인 제도인 선거를 계급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인식에 있어 과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의식의 부재야말로 사회변혁을 위한 일차 과제를 인겨주는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김동춘씨는 이번에 국민당을 지지했던 중간층은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재벌당인 국민당에게 기대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국민당이 기업자본 고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면도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통치체계를 합리화시키고 강화시켜 더욱 재벌의 입장을 용호하게 될 것"이 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민당의 득세에 비해 참패를 당한 민중당과 모든 민주운동세력들은 이번 평가를 받을것인가.

민중당이 해산될 수 밖에 없는 곧 이어서 김동춘씨는 3·24총선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민당의 예상외의 득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민당을 지지한 국민층은 대부분 계급의식이 결여된 광범위한 중간층이었다."고 말언했다. 즉 생산적 노동자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현실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그는 중간층이 사회변혁의 조짐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간층을 변혁과정에 동참시키는 것이야말로 대세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으로 정교수는 현재 운동세력은 대중에게 불신감을 주고 있는데 대해 "이번선거 이후에서도 대중에게 패배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조차 무시하는 무책임한 자세와 구태의연한 종파투쟁에 매몰되어 가는 모습이 그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인 대중과의 접촉에 있어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전국 연합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중의 정치세력화를 시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역량을 무시하고 오히려 민중세력화에 저해되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와같은 정근식교수의 전운동진영에 대한 비판은 향후 사회변혁운동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점을 짚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변혁운동에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중의 정치 세력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발표회의 사회를 맡은 조형제(한림대 강사)씨는 "대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의 의식 성향 파악이 요구되는데 발제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없어 아쉽다"라고 말하고 "노동자의 의식성향 파악과 이후 노동조합 결성으로 민중적인 당을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쟁점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발표회를 정리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발제자와 참가자 모두 공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결성과 이를 세력화시키는 작업, 그것이 바로 사회변혁과정에서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서였다. 그리고 지금 건설되어 있는 대중 노동 단체가 안고 있는 실천적인 화제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요청된다라는 점에서였다.

총선을 계기로 했던 이번 발표회는 선거에 대한 계급적 인식과 사회변혁의 과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전체 운동진영에 대한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올바른 운동방향을 지적해 주는 장이었다.

〈김미화 기자〉

사람산맥

영원한 청년 투사 김병곤

역사가 거듭될수록 위인은 늘어만 가고 우리네 역사는 업사를 낳아 가는 짓같다. 위낙에 위대한(?) 역사이기에 그토록 짊은 피들을 원하는가 보다.

김병곤, 70년대 박정희정권의 유신독재와 80년대 전두환정권의 군사독재의 억압속에서 그는 20대, 30대의 뜨거운 정열을 민주화와 민중에게 바친 인물이다. 90년 12월, 6차례의 투옥끝에 얻은 위암으로 새날을 보지못한채 영면(永眠)한 그 순간까지도.

김병곤은 1953년 경남 김해군에서 1남4녀의 네째로 태어났다. 부산 개성중학교,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기까지 그는 내내 모범생이었고, 넉넉지 못한 형편을 마음아파 하셨던 부모님의 꿈이었다.

그가 71년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박정희정권은 비상계엄, 긴급조치 등을 통해 유신체제를 굳히려 했다. 74년 봄, 전국적인 유신반대 학생시위가 조직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민주청연학생연합'즉, 민청학련사건이었고 긴급조치4호에 따라 김병곤은 이철, 유인태, 김지하등과 함께 21세의 가장 어린 나이로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구형받는다. 그의 최후진술 첫마디는 "영광입니다!"였고 이것은 백마디 웅변보다 더한 감동이었다.

78년 2월 김병곤은 한국기독청년협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때 동일방직노조 탄압현장 사진을 담은 선전물을 제작하며 테포하자 박정권은 민주노조운동과 학생운동과의 연계를 방해하기위해 김병곤을 다시 투옥시킨다. 공소유지를 위해 국가원수모독죄를 추가시켜 그에게 3년형을 선고하였다. 79년 10월 26일 궁정동의 총성과 함께 박정권이 붕괴된후 김병곤은 석방되었다. 80년 3월 제명학생 복학조치로 그는 다시 서울대에 복학하게 되었고 그해 5월 전두환 일당의 광주학살극이 벌어지는 동안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따라 김병곤은 계엄사 소속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된다.

83년 '민주화청년운동연합'이 창립되어 전두환 쿠데타이후 학생운동출신의 청년활동가들은 투쟁성의 기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여들었다. 김병곤은 이 공개운동조직의 상임위원장을 맡아 다시 활동에 들어갔다. 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소값파동 농민시위, 대우자동차 노동자파업등 민중생존권투쟁이 고양되자 전두환정권의 탄압이 거세어지고 김병곤은 또다시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명으로 투옥된다.

87년 전국이 투쟁의 열기로 달아올랐던 7월, 그는 출소하였고 잔은 것으로 고통스러운게 부끄럽다'라며 가슴아파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먼저간 선배들의 만자욕은 이토록 깊고 선명하게 남는 것일까. 7·80년대의 억압을 지나 또다시 90년대의 억압속에 살고 있는 우리 곁엔 이미 산화해버린 넋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또다시 붉은 계절이 다가온다. '동지'라는 힘찬 외치줄 수있는 새날을 위해 먼저 가신 선배들을 생각하며 오늘 다시 옷깃을 여미어 보자.

김미희〈서양·이태리어3〉

햇 글

■임투 그 승리를 위한 선동(김경환·한숙웅 지음)

92년 임투시기의 주요한 선동과제로 일 더하기 운동, 총액임금제, 허구적 반노동자적 이데올로기 등을 노동자적 입장에 서서 어떻게 깨부수며 반대선동을 해낼 것인가 가 제시된다. 이 책에는 선동을 통한 선봉대 조직화 제안, 지하철 선동의 요령 등과 함께 부록으로 모범선동문이 실려 있다.

〈참세상 펴냄. 3천5백원〉

■우리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김성수 지음)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50~60년대 북한 학계에서 이루어진 리얼리즘에 관한 논쟁 가운데 우리 문학에서의 리얼리즘 전통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발생·발전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리부분에서 소련 학계의 고전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끝부분에 북한학계의 리얼리즘 논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사계절 펴냄. 7천원〉

■만화 경제학 강의(칸이반 지음. 박학규 옮김)

경제에 있어서의 가치·생산 및 분배와 관련하여 스미스·맬더스·밀·마샬·케인즈·리카르도·마르크스 등 경제학자 7인의 각 이론들을 만화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론들에게는 창출된 부에 대한 서로 다른 계급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월 펴냄. 3천5백원〉

■군축시대의 한국군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지민원 지음)

세계적으로 불어온 이데올로기의 퇴조와 군축바람을 한반도에 적용한 국방경영정책서이다. '남북통합군 사령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책의 필자는 '분특정 가상국'으로 지향하기 위한 군사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세우고 있다. 〈진원 펴냄〉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박찬승 지음)

이 연구서는 최근에 '민족개량주의'라고 불리는 실력양성운동쪼의 본질적 성격과 그것의 계급적 기반이었던 민족주의 부르조아 상층의 정치경제성 취약성을 밝히고 있다. 그럼으로써 일제하 조선의 부르조아 민족주의, 특히 그 우파가 본질적으로 지닐 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역사비평사펴냄. 1만2천원〉

■과학기술혁명과 한국사회(고려대 평화연구소 엮음)

기술진보가 사회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한국사회의갈등구조를 단순한 노사문제의 차원을 넘어 기술혁신·정보집중등을 통한 사회권력구조의 변화, 이로 인해 파생되는 노사갈등의 문제, 환경오염, 정신빈곤화, 국제적 차원에서의 기술경쟁과 그 파급효과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길사 펴냄. 6천5백원〉

총액임금제

소금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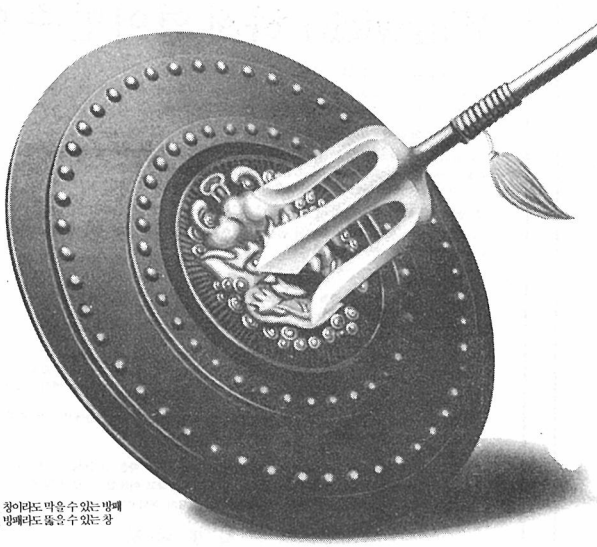
총액임금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측에서 주장해온 임금인상억제책으로써 올해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인 정책이다.

임금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 이전에는 기본급여만 인상시키고 봉급·월동수당등은 특별급여라 하여 제외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총액임금제에 의하면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포한한 개념인 총액임금의 인상률을 5%선에서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인상 억제방침은 현정권이 경제위기의 원인을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측은 총액임금제를 합법화함으로써 근래 임금협상 투쟁에 돌입한 노동운동진영에게 협상의 근거조차를 말살시켜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다.

소재의 럭키금속



矛盾 어떤 창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

럭키금성

"문제가 있는 곳에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생각과 실천의 괴리,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그리고 자신과 세계 사이의 긴장 등…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많은 모순들은
영원히 풀지 못할것 같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많은 만큼
젊은 지식인의 창조적 역할이 더욱
필요한게 아닐까요?
거칠것 없는 불굴의 의지로 문제해결을
위해 정면으로 도전하십시오.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고
치열하게 정진해 나가면 해결의 길이
열리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創造"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럭키금속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련
연간 22만5천톤의 동을 비롯하여 금, 은, 주석 등 10여종의 비철금속 및 금속화합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성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황산을 비롯하여 무수황산, 무수아황산 및 전자공업용 고순도황산 등의 정밀화학 제품과 붕불화칼륨, 황산니켈 등의 도금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속가공
세계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스테인리스파이프, 무산소동 및 동파이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산업용 기초소재 생산의 오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라믹 IC Package, Se 감광재료, 희토류 산화물 등 신소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럭키금속

'여소야대'가 몰고온 정치권 질서재편

민자·국민, 지배세력의 이해관철에 공동대응가능성

민주, 재야입당과 입지강화로 당내 체질개선 대두

지배세력의 내분과 보수대연합의 모색

총선 참패 이후 민자당은 내분에 휩싸이고 있는데, 주지하듯이 총선 이전에도 민자당은 집안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 집안 싸움은 기득권을 손상받지 않으려고 하는 민정계와 적은 의원수에도 권력을 분점하려는 공화계의 내각제에 대한 욕구를 한편으로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고수하여 차기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민주계 간의 갈등

총선결과를 비탕으로 각 정치세력의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말〉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련의 갈등을 거치면서 민정계의 김영삼에 대한 반발은 더욱 고정화되었다.

총선 이전에 민자당 내분은 극에 달해, 총선 전에 대권 이양을 분명히 가시화시킬 것을, 달당마저 들먹이면서 요구하는 민주계를 달래면서 총선에 몰입한 노태우는, 14대 총선에서 개헌 가능선인 의석수 2/3 이상의 석권을 통하여 친미보수연합의 제도적 완성내로서의 내각제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거 참패로 인하여 애초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태이다. 즉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개헌 저지선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둠으로 해서, 내각제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민정계가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우선적인 과제는 이번의 참패를 기회로 김영삼의 정치적 영향력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김영삼에게 대권이 이양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영삼의 반발 정도, 여론의 추이에 따라 타격을 가하는 시기와 내용이 조절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을 축출시키려는 기본 방향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정계는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소속을 끌어들이는 데에 노력하는 한편, 타정당과의 공동 보조를 추구할 것이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독자 계파로서의 존립근거를 상당히 상실한 김종필과의 공동보조는 그 의미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보다 주요하게는 국민당과 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당과 민중전영을 상대로 국민당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 해서, 지배세력의 이해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당과 정선을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여권표의 분산으로 곤욕을 치룬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당과의 공동보조는 일상적 정국운영뿐만 아니라, 대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민당도 민자당과의 공동보조를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다. 국민당은 비록 6공의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정체세력화에 나섰지만, 재벌 위주의 정책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추진할 의사는 전혀 없는 집단이다. 단지 국민당이 요구했던 바는 관 주도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었기에, 지배세력의 공동 위기 앞에서도 경쟁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히려 국민당은 민자당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대가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보다 확고하게 전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데에 우선적인 노력을 쏟을 것이다.

위와 같이 이원집정부제 등의 형태로 추진될 보수대연합은 미국의 이해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친미보수대연합을 구축할 것을 종용하여 왔으며, 민자당 창당도 그 결과물이다 미국이 보수대연합을 종용하는 이유는 안정적 다수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 해서 제3세계 권력의 안정화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민자당과 국민당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종용할, 강력한 세력으로 배후에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구체적인 정치형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결정되기 마련이다. 국제 및 국내 정치, 경제 질써, 민중들의 동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하나의 정치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민정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장애에 부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민자당, 국민당의 연합이—계급본질상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지만—단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일 경우에 민자당은 내적으로는 TK인사를 후계자로 내세워,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당 후보와도 경선하는 대통령 선거전에 전면돌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미국, 민정계의 입장에서는 모험이기 때문에, 보수대연합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향후 전망

민주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79석(전국구 포함 100여 석)확보를 목표로 하았는데, 이러한 목표에 거의 육박하는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지역구 75석, 득표율은 29.2%).

그러나 민주당의 한계는 이번 선거에서도 극복되지 않았다. 즉 야당통합의 결과 지지율도 신장하고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당선자가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영남, 지역에서 한 명의 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비호남—반민자표의 국민당으로의 합류 현상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나마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에서의 재야입당과의 승리가 차지하는 바가 크다. 이부영, 유인태, 박계동, 신계륜, 원혜영, 제정구 등 재야입당과의 대거 당선이 민주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민주당은 선거 이전에 사회의 보수화를 이유로 민족민주전영과의 연대를 거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이 보다 개혁적이기를 바라는 염원을 재야입당파에 대한 지지를 통해 표출한 것이다.

여하튼 이번 선거에서 일정한 승리를 거둔 김대중 씨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역적 한계와 보수성 등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대권후보 문제를 둘러싸고 김대중 씨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그다지 훼손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볼 때, 민주당 내에서 그의 지도력이 크게 손상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한편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서 1명의 의원도, 2%의 지지율도 획득하지 못해 정당을 해산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좌절에 따라 내부 논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동당과 민중당이 총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통합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논쟁이 매우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 논쟁의 추이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세력은 진보정당운동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민주—반민주의 구도를 청산하고 보수—혁신 구도로의 전환이 민중운동의 전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요구된다고 87년 이후 일관 되게 주장해온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예상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중당 노선이 좌절됨으로 해서 당분간 환기한 운동을 전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총선의 결과를 '잣대'로 하여 각 정치세력의 각축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축전은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지어지는가에 따라 대선과 90년대 중반기 한국사회의 모습에 심대한 규정력을 미칠 것이다.

최 동 규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언론공작이 노리는 '민자 참패론'의 본질

14대 총선결과를 어떻게 볼것인가

언론에 의해 확대포장된 14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정국이라는 14대 총선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한바탕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과반수 의석 확보로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자당이 총선 결과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민자당 내 계파분열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이었던 국민당의 상대적인 급부상, 그리고 무소속 후보의 대거 당선등으로 이후 정세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국민당, 무소속 후보 당선등이 낳은 14대 국회의 '여소야대'정국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제도권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여소야대라는 14대 총선 결과가 지나치게 확대 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즉 현재 여소야대를 이루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던 국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성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단순히 여소야대라는 현상 자체만을 부각시킴으로서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언론들의 보도태도는 민자당의 부정선거 의혹을 희석화하기 위한 일종의 '언론공작'이라고까지 풀이되고있다. 즉, 민자당 패배를 부각시킴으로서 총선 결과 말썽이는 된게 뻔했던 부정선거 시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뿐만아니라 논의자체를 원천상쇄하겠다는 의도이다. 때문에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다수의 제도권 언론들은 민자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대신 연일 민자당내 대권 후보 논쟁을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여소야대'장출이라는 총선 결과의 기현상(?)만을 분석하기에 급급하다.

언론, 총선결과 확대·왜곡, 부정선거 희석화

국민당, 재벌의 정치참여·노동통제 강화기도

여전히 힘(보도)의 우위는 민자당에 두면서 겉포장에 불과한 '여소야대'를 수식어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감각을 떨어뜨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총선 결과의 본질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재 언론의 보도 행태라 할 수 있다.

과연 여소야대 정국인가?

'여소야대'라는 14대 국회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껏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그것은 새로운 야당으로 등장한 국민당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무소속 후보 당선자들의 대부분의 민자당 공천에서 탈락한 여권 성향의 인사라는 점과 이들이 민자당내로 합류할 가능성을 생각했을때는 결코 진정한 '여소야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14대 총선결과 나타난 '여소야대'국회는 역대 총선결과와의에 국민당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어느정도 기존 정치권에 불신을 갖고있었던 국민들에게는 국민당의 본질 여부는 차지하고서라도 국민당에 대한 호기심리와 함께 정치 불신의 벽을 국민당이라는 대안(?)속에서 찾으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무소속 후보의 대거 당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민자당에 대항하는 투쟁한 대체 세력의 상을 찾지 못한 국민들의 상대적인 기대 심리가 국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쏠리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가능케한다.

그러나 자금력, 조직력면에서 현대라는 재벌 기업을 등에 업고있으며 현재 재벌 기업과 권력과의 유착 정도를 보았을때 과연 국민당을 야당 세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동자 탄압왕국'이라고 까지 불리는 현대기업이 국민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참여를 선언하게 된 것은 그들의 선전처럼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과 '빈부 격차가 없는 평등 사회 건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재벌기업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보다 효과적인 노동 통제를 기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지론이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당이 출마할 경우 여권표의 상당수를 잠식할 우려로 인해 민자당으로서는 국민당을 견제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제2의 보수대연합의 상대로 포섭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선택 변수가 많은 국민당은 이후 정국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야당 아닌 야당으로 군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민당의 속성을 볼 때 기존 야당 세력과 국민당과의 사이에 정치적 동질성에 관한 명확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번 14대 총선의 '여소야대'정국 역시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남한 정치사에 있어서 재벌의 정치 참여라는 또하나의 이정표를 남긴 국민당은 이후 정치권의 변화 및 차기 대통령 선거의 '대풍의 눈'이 될 전망이며, 이러한 국민당에 대한 전제가 민민운 진영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현숙 기자〉

해외 영어 연수 프로그램 안내

목 적 : 해외 각국에 소개하는 유명대학과의 자매결연에 의한 교육교류협정의 일환으로 영어연수활동을 통하여 각국의 언어 숙달및 문화교류에 있음.

연수활동 국가및 대학 :
1) 영국 : Warwick 대학교
2) 미국 : Berkeley 대학교, Delaware 대학교
3) 기타 : 호주 등 기타 대학교도 희망학생에따라 추진가능

연수기간 : 방학기간중
1) 동계 (1월—2월) : Delaware 대학교 (미국동부)
2) 하계 (7월—8월) : Warwick 대학교 (영국)
Berkeley 대학교 (미국서부)

*기간은 각 대학교 공히 방학기간중에 5—6주 영어연수후 10—15일간의 해당지역 및 인접국가 견학, 관광후 귀국

연수인원 : 각 대학교 공히 30명 선착순 모집 후 확정함.

연수소요일체경비 : 약$6,000선(영어연수비, 관광비, 항공료 단, 개인경비 제외)

학점인정 : 자매결연대학교와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해외영어연수』성적으로 『3학점』이 인정되어 교양영어, 제2영어, 교양선택 등에서 대체 인정됨.

모집시기 : 1학기—3월, 4월중. 2학기—9월, 10월중에 공고및 게시함.

주관부서및 문의처 : 서울캠퍼스학생처 학생과 취업보도계 (취업보도주임)
전화 : 961—4033, 963—7635.
용인캠퍼스학생처 학생과
전화 : 0335—30—4033, 4034.

1992년 3월

학 생 처 장

워 릭 대 학 교 (University of Warwick) 하계 영어연수 안내

1. 워릭대학교의 영국내 위치

워릭대학교는 영국내에서 Oxford. Cambridge, London University와 더불어 4대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세계 유수의 대학이며, 『영국의 MIT』로 불리울 정도로 명망있는 대학교임.

2. 워릭대학교의 영어연수 프로그램

워릭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워릭카운티(Warwick County)의 별명은 Shakespere's County로서, 워릭대학교는 Shakesperare의 生家(birthplace)가 있는 Stratford와 인접해 있음. 이러한 연고로 워릭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정통영국영어(Orthodox British English)를 교육시키는 産室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져 있음.

3. 본 대학교의 금년 하계 영국연수 프로그램

금년 본 대학교는 워릭대학교 영어 연수프로그램에 연수학생들을 파견키로 결정하고 지원자를 모집함. 금년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음.

7월 4일	김포 출발, 런던 도착
7월 6일~8월 7일	영어 연수 프로그램(5주)
8월 8일~8월 16일	유럽 여행(8박 9일)
8월 16일	서울 귀환

연수경비는 약 $6,000 수준임(단 최종인원 확정후 다소 조정될 수 있음)

4. 유럽여행 일정

1) 영국 체류기간중 London, Oxford, bach, Stratford등 영국의 주요 명소를 두루 교육시찰함.
(특히 Stratford 방문시에는 Shakespeare의 연극을 Royal Shakespere Theatre에서 관람할 계획임)
2) 8월 8일 런던 출발
→프랑스 파리(베르세이유)→독일 프랑크푸르트→로텐라이언덕→하이델베르그→이태리 로마→나폴리→폼페이→쏜렌토→네덜란드 암스텔담
관광후 8월 16일 귀국할 예정임.

5. 본 연수 프로그램은 본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 특히 서양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양문화의 본류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임.

6. 모집시기 및 접수처 : 1992년 4월15일까지, 학생처 취업보도계

1992년 3월

학 생 처 장

외대 문예운동의 대중적 조직화를 위하여 〈2〉

소모임 강화·연대로 발전하는 노래운동

일반사회와 구별되는 대학사회의 특수성—그 중에서도 문화적 특수성—은 '노래'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래라는 매체가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밀착해 있기 때문에 '노래운동'이라는 것을 객관화시켜 문화운동내의 한 부문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일반사회에서 접하기 어려운 노래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불리어지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의 일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같은 노래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노래의 흐름은 학생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발전해 왔으며, 최근에 노래운동이 우리문화 속에서 독립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본교는 양캠퍼스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래에 대한 학우대중들의 지향이 높다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선 본교의 노래소모임들을 보다 내용성있는 모임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양캠퍼스 노래운동의 현황과 과제

먼저 서울캠퍼스를 살펴보자.

서울캠퍼스에서는 각 단대나 과를 중심으로 한 노래 소모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89년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과단위 자생적 소모임은 90년, 91년에 많이 생겨났다. 이는 노래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과 요구가 무척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모임의 상황들은 차이가 많은 편이다. 정기적인 모임속에서 문예이론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자 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과행사를 위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모여 연습하는 데 급급한 모임도 있다. 특히나 과 구성원이 30명 안팎의 소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는 것은 문예이론에 대한 학습과 악기·활동공간의 부족이다. 각 소모임에서 문예이론을 지도해 줄 주체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또한 소모임의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나 단대 학생회 문화부와의 관계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모임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용인캠퍼스는 서울캠퍼스와는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앙노래동아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노래패는 아직 노래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소모임이 거의 존재치 않는 학과도 있고 서양학대와 동양학대의 경우, 각 과 노래소모임이 존재하지만 이들 소모임은 대부분 내용성을 채워내기에는 미흡하다. 각 과별로 구성된 원어노래패들은 현재 6월에 있을 '92세계민속예술제를 준비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노래소모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노래운동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각 소모임은 학회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문예이론에 대한 학습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용인캠퍼스에서 노래운동이 시작된 것이 몇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 소모임의 가시적인 발전을 당장 요구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모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양캠퍼스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노래운동에 대한 전망이 그리 어둘지만은 않지만, 그 질적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과제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캠퍼스에서 지난 겨울방학에 실시된 문예학교는 문예이론에 대한 학우들의 학습욕구를 채워주고 문예조직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앙노래창작단은 이문동 노래운동의 급격한 발전을 말해주고 있다. 상경대, 법대와 중국어과, 러시아어과, 일본어과 등의 노래패원들로 구성된 중앙노래창작단은 각 노래소모임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문예이론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소모임의 창작활동에 대한 요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소모임간의 연계를 통해 각 노래패가 충실한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단대차원의 상시적인 결합도 꾀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될때 각 소모임간의 편차가 극복되고 일회성사업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캠퍼스는 '92세계민속예술제를 기점으로 각 과 노래소모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소모임들이 올바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노래운동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힘들어 질 것이다. 노래운동의 주체들이 지향해야 하는 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노래이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공동체적 의식과 정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각 과 노래 소모임이 이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목적의식적인 결합 속에 이를 수행해 나갈 때 노래운동은 조직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지금은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 문화부에서 주체를 세우고 학우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삶의 일부로 자리하는 노래운동

노래는 그 매체의 특성상 누구도 쉽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삶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중의 정서에 쉽게 접근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래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노래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래운동이 일시적 운동도구적 매체로서의 노래가 아니라 기존의 문화현상에 대한 '긍극적인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노래'를 그 매체로 할 때만이 노래운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노래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건강한 삶의 일부로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하자.

〈황효순 기자〉

글싣는 순서

1. 92년 학생문예운동의 역할과 본교 문예운동의 현황
2. 본교 노래운동의 현황과 대중화·조직화 방안
3. 본교 풍물운동의 현황과 대중화·조직화 방안
4. 본교 문학운동의 현황과 대중화·조직화 방안

우리말의 쓰임새 (211)깡통·깡패

·이문동 깡통에서 동문회합니다.
·요즘은 깡패가 많아서 무섭다.

'깡통'이나 '깡패'는 모두 우리 입에 베어버린 일본말들이다. 깡통은 '캔(can)'을 일본식으로 읽어 '통'을 붙인 것이고, 깡패도 '갱(gang)'을 일본식으로 읽고 '패'를 붙인 것이다.

올바른 외래어도 우리말도 아니니, 깡통은 '캔'이나 '통'으로, 깡패는 '싸움패'로 쓰는 것이 좋겠다.

용인캠퍼스 동아리 〈우리말가꿈터〉

올바른 모꼬지 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함께 하니까 이다지도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놀이속에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모꼬지가 돼야

"열 여덟 딸기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새내기 명구는 벌써 소주를 한 병이상 마시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과 선배들의 호출로 일어나서 평소 그의 애창곡 '소양강 처녀'를 열창했다. 그가 노래를 마치자 와아하며 앵콜 앵콜하는 소리가 들렸고 명구는 쉬한 김에 '부녀전 사랑탑'으로 팬(?)들의 부름에 응답했다. 명구는 앵콜 신청까지 받는 인기를 누렸음에도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평창한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온 모꼬지에 엄청난 실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실망한 때는 오후에 공놀이를 할 때였다. 남학생들끼리만 배구를 하고 여학생들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구는 평소 말수가 적어 아직 몇번 얘기도 못 나눠본 영숙이와 같이 놀면서 친해지고 싶었으나 그게 안되니 답답했다. 또 명구가 저녁밥을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해 지어놨는데 사람들은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 명구를 슬프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섭섭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하며 친해지려고 했으나 모두 친한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둘러앉아 떠들고 있어 명구가 낄 틈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방바닥에 토악질하는 사람까지 보여 명구는 눈쌀을 찌푸리며 일자리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님 왜 모꼬지 오면 꼭 술을 마셔야 해요?"

"짜식— 술 안마시면 다 내 숭떨고 빼니까 술을 마시는거지. 자! 한잔!"

명구는 선배의 말이 아리송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때 었다. 갑자기 방의 형광등이 꺼지더니 이내 요란한 팝송과 함께 어디서 구했는지 현란한 사이키 조명이 온 방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몸을 흔들어 댔다.

명구는 한참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집에 보내 달라고 소리치며 떼를 썼다.

"애국 외대 기치를 높이 올려라—" 달구네 과 사람들은 청량리 역앞에서 모이자 마자 둥글게 모여서서 '애국외대가'를 소리쳐 불렀다. 그들은 목적지 도착후 일단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뒤 밖으로 모두 나왔다. '농민가'와 춤도 배우고 씨름, 꼬리메기, 기뎃기둥 모두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달구는 속으로 '야— 다같이 노니까 이다지도 재밌고 좋은 것을…'하며 흐뭇해 했다. 또 달구가 저녁밥을 만들자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 수고했다'며 칭찬을 해 주는 것이었다. 더 신나는 것은 '과노래만들기 경연대회'를 했는데 달구네 조가 일등을 해서 상품까지 탄 것이다. 밤에는 다함께 술도 마시면서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목금 문제에 대해 토론도 하고 선·후배가 솔직하게 각자의 삶과 생각을 이야기하며,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달구는 그가 대학 들어와서 배운 노래 '광야에서'를 불러 귀여움을 받았다. 달구는 너무 너무 신이 나서 우리 머칠 더 묵자고 떼를 쓰며 선배들을 졸랐다.

대부분의 모꼬지는 명구네과의 예에서처럼 소비적이고 흥미위주의 늪이로 가득해 그 진지함이나 공동체 상원들간의 단합, 소속감을 키울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모여서 노는 데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같은과 친구들이라고 해도 그다지 친하지 못했던 학우들과 서로 몸을 부대끼고, 솔직하게 마음은 터 놓으면서 느끼는 서로의 따뜻한 체온이야말로 모꼬지의 참의미일 것이다.

정말 즐겁고 의미있는 모꼬지를 위해서는 너나 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그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놀이나 계기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우리 민족문화를 되찾을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의 모꼬지의 역할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진영 기자〉

새로운 양식으로 변모하는 민족극

- 극단 천지의「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역사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것은 그 새로운 시도에 대한 평가가 그때그때마다 충실히 이루어지고 그 오류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연극에 있어서도 새로운 양식에 대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극단 천지가 공연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연극에 영상매체가 결합된 '키노드라마'라는 형태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온 전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들어가게 되며, 우연히 사장의 눈에 들어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본사 기획실 직원으로 발령받는다. 노조원들의 등태파악을 위해 '꽃다지'공연을 보러간 전수는 자신의 어릴 적 소꿉친구였던 영애가 그 회사의 노동자임을 알게 된다. 둘은 반갑게 재회를 하지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출세를 꿈꾸는 전수와 대학에 들어와 현실에 눈뜨고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영애의 서로 다른 세계관은 심한 대립을 낳기도 한다. 한편 회사에서는 노조간부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꾸며지고 전수는 이를 영애에게 알려 주지만, 영애는 전수의 직책을 뒤늦게 알고 그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전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 회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구사대로 농성현장에 진압을 위해 나선 전수는 실신해서 끌려나가는 영애를 보며 분노한다.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보는 전수의 모습을 끝으로 연극은 막을 내린다.

내용면에서 이 연극은 기존의 노동연극과 비교해 분명 별 차이점은 없었다. 다만 중간중간에 전수가 어릴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나 전수와 영애가 만나고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이 영상으로 보여지면서 연극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일정부분 극복될 수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동장인 몰들이 무대에 소품으로 등장하는 점이나 빠른 동작 등의 삽입도 신선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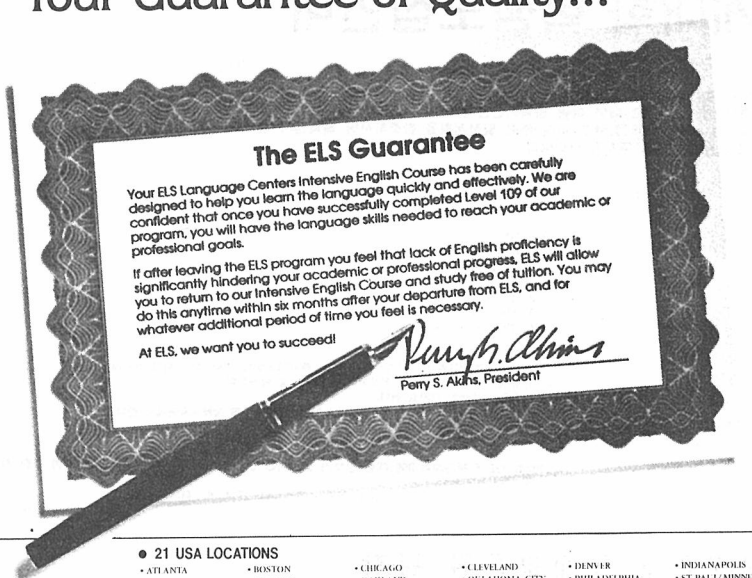
"민족극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졌던 많은 도식적 연극의 틀을 깨고 이 시대의 문제를 담아내는 데 있어 새로운 '전형'의 가능성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연출가 김상열씨의 말처럼 '내용의 도식화'와 '양식의 고정화'를 탈피하고 변화하는 대중들의 의식과 요구에 발맞추어 보다 사실적이고 호소력있는 연극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연극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아직은 엉성하고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새로운 시도는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은 물론이고, 내용성 있는 의미로 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바람직한 변화있다고 평가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작업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내용과 양식으로 연극이 변화·발전해 갈 때 우리 연극은 대중으로부터 고립을 깨고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Your Guarantee of Quality...



ELS® SEOUL

ELS는
English Language Services의 약칭이며,
미국의 권위있는 영어학자들을 주축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수 방법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영어교육, 연구기관입니다.

ELS Language Centers는
ELS가 직영하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영어교육 기관으로서, 미국내에 21개의 ELS Centers와 29개에 달하는 분교를 전세계에 갖고 있는 명실 상부한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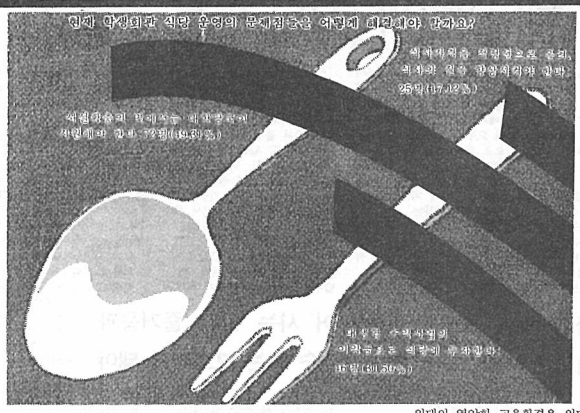
ELS는
본부를 LA에 두고 있으며, 30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교육 Program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ELS강남 565-0509 ELS종로 278-0509 ELS서초 585-0509

● 21 USA LOCATIONS
· ATLANTA · BOSTON · CHICAGO · CLEVELAND · DENVER · INDIANAPOLIS
· NEW YORK CITY(2) · NORMAN · OAKLAND · OKLAHOMA CITY · PHILADELPHIA · ST. PAUL/MINNEAPOLIS
· ST. PETERSBURG · SAN DIEGO · SAN FRANCISCO · SANTA MONICA · SEATTLE · WASHINGTON, D.C.

● 29 INTERNATIONAL LOCATIONS
· SEOUL(3) · PUSAN · OSAKA · TAICHUNG · BANGKOK(2)
· KUALA LUMPUR · KOBE(2) · TAIPEI(6) · JAKARTA · LIMA
· SAO PAULO(5) · TOKYO · KAOHSIUNG · LONDON(2) · BANDUNG

그림돋보기—양캠퍼스 학생식당에 관한 설문조사



용인캠퍼스 설문조사 결과

질문 1. 주로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시간은?
10시~11시:0.86% 11시~12시:11.73% 12시~1시:44.78% 1시~2시:19.13% 2시~3시:6.52% 3시~4시:4.78% 4시~5시:4.34% 5시~6시:6.95% 6시~7시:0.86%

질문 2. 일주일에 식당 이용 횟수는?
어문관 식당:14.63% 학생회관 식당:56.20% 기숙사 식당:29.16%

질문 3. 학교 식당에 대해 만족도를 점수로 나타내면?
0~25점:11.28% 26~50점:51.60% 51~75점:33.05% 75~100점:4.02%

질문 4. 식당이용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위생상태와 환경:15.09% 메뉴의 단조로움:40.56% 식사공간 협소:2.83% 건물과 너무 멀리 식당이 위치:10.37% 밥류 배식시간에 맞추기 힘들다:17.92% 배식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다:13.20%

질문 5. 식사의 질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느끼는 사항은?
밥(쌀)의 질:22.92% 반찬의 질:36.94% 배식량:12.10% 반찬의 단조로움:28.02% 기타:5.09%

질문 6. 학생회관 식당은 대생협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확보없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지난 23일 파업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식사가격을 적정선으로 올려, 식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17.12%
시설확충의 면에서는 대학당국이 지원해야 한다:49.31%
대생협 수익사업의 이익금으로 식당에 투자한다: 31.50%
기타:2.05%

질문 7. 학생식당 개선을 위해 하고 싶은 말

설문조사 대상:용인캠퍼스 학생 1백41명
조사 일시:3월27일(금)

외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외대인의 올바른 학습권을 오랜동안 저해하여 왔고, 매년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학내에서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용인의 교통문제와 서울의 공간활용문제와 함께 양캠퍼스의 식당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 본보에 설문조사를 통해 외대인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지난 9일(월)의 식당요금인상을 계기로 학생복지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12시부터 2시 사이로 전체 응답자의 85.38%가 이시간대에 집중되어 협소한 식당공간에서의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캠퍼스 학생식당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간의 부족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는 질문2에 대한 응답에서 잘 나타내 주는데, 식당이용시의 불편사항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배식시간이 길다(26.1%)' '공간이 협소하다(25.69%)' '식권구입 시간이 길다(23.32%)'의 항이 모두 공간문제의 범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문제에의 대안으로 질문에서 연수원 지하를 제2식당으로 하는 안과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을 분리하여 연수원지하를 교직원식당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각각 30.94%, 56.60%가 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후자를 선호했다.

그리고 식당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혼잡을 피하기 위한 제안으로 구내매점에서 식권을 판매하거나 식권을 쿠폰형식으로 판매하자는 항목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한편 최근의 인상된 식대에 대해서는 70.04%에 달하는 응답자가 식당과 식사의 개선이 없는 식대인상은 부당하다며 인상분에 대한 책임있는 질적향상을 요구했다.

이 밖에 학생식당의 개선을 위해서는 식당내 금연등 이용학생들의 질서의식과 함께 공간활용과 구조의 합리화, 후생과의 복지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학교식당 이용이 불가피한 용인캠퍼스의 식당문제는 서울과는 다른 각도에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학생자치기구인 대학생활협동조합에서 직영하고 있는 학생회관 식당의 경우에는 미비한 주방시설로 작업환경도 열악한데다 전체 식당이 용인원의 절반이 넘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므로 거듭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로 지난 23일(월)은 식당파업이 있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문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식당의 구실을 하기에 필요한 주방의 설비들은 대학당국에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49.31%가 밝혔다. 식당복지의 문제도 또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등록금 투쟁에 있어서 '재단전입금 확보'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등투의 승리가 곧 식당복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학생회관식당 운영에서 매년 적자로 타본아에서의 수익금이 충당되어 현상유지가 되는 대생협의 상황과, 식대 인상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낮은 기표율로 보아 학교당국의 적절한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용인캠퍼스의 식당복지는 기반을 가질것이다.

서울캠퍼스 설문조사 결과

질문 1. 구내식당의 이용 횟수는?
거의 매일:30.10% 주4회 정도:16.80% 주2~3회:34.94% 거의 안한다:25.69%

질문 2. 학생식당 이용시 불편한 점은?
환경이 불결하다:6.76% 메뉴가 적다:18.18% 공간이 협소하다:25.69% 배식시간이 길다:26.01% 식권구입 시간이 길다:23.32%

질문 3. 주로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시간은?
11시30분~12시:5.16% 12시~1시:60.61% 1시~2시:24.77% 2시~3시:3.09% 3시~4시:1.47% 4기~5시:2.50% 5시~6기:1.76% 6시~7시:0.58%

질문 4. 하숙집, 학교앞 식당과 비교할 때 밥의 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좋다:9.23% 그저 그렇다:56.09% 나쁘다:34.67%

질문 5. 하숙집, 학교앞 식당과 비교할 때 반찬의 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좋다:4.37% 그저 그렇다:43.30% 나쁘다:52.31%

질문 6. 학생식당의 배식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많다:11.75% 적당하다:65.20% 적다:23.04%

질문 7. 최근 인상된 식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비추어 불매 당연한 인상이다:10.55%
식당과 식사의 개선이 없는 식대 인상은 부당하다:74.04%
소폭의 인상은 괜찮다:13.48%
기타:1.90%

질문 8. 배식방법을 부페식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은?
찬성:66.71% 반대:33.28%

질문 9. 식당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연수원 지하를 제2의 식당으로 한다:30.94%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을 분리하여 연수원지하를 교직원식당으로 한다:56.60%
그냥 이대로도 건딜만하다:8.55%
기타:3.89%

질문 10. 식권구입시 걸리는 시간과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구내매점에서 식권을 판매한다면?
찬성:70.51% 반대:29.48%
식권을 쿠폰 형식으로 판매한다면?
찬성:82.99% 반대:17.00%

질문 11. 식당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탁, 의자의 불결함:45.50% 냉난방시설:4.96% 환기 통풍시설:19.32% 식기의 청결문제:25.36% 기타:4.83%

질문 12. 메뉴의 반복이 심해 먹을 것이 없다면, 무엇을 더 첨가하면 좋을까요?

질문 13. 배식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늘이는데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94.37% 반대:5.62%

질문 14. 학생식당 개선을 위해 더 하고 싶은 말.

설문조사 대상:서울캠퍼스 학생 8백45명
조사 일시:3월19일(목), 20일(금)
설문조사 주체:서울, 학생복지위원회

점수로 나타낸 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계산되었을때 46.69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학교식당의 운영자들은 외대인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각성해야할 것이다.

공간부족의 문제가 주가 되는 서울캠퍼스와는 달리 용인의 학교식당은 식단의 단조로움이 40.56%의 비율로 가장 문제시되었고 밥류 배식시간이 짧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도 10.37%를 차지해 장기적으로 볼때 신장의동 증축과도 관련하여 다른 건물에 식당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서울, 용인 각 캠퍼스의 학생식당문제를 점검해 보았다. 당면해 있는 식당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각 캠퍼스의 특수성에 맞게 식당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안을 정리, 집중하고 우리 외대인들의 기본적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투의 과정속에서 조직적으로 주장을 펴나가야할 것이며, 외대인 하나하나가 주인답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충미 기자〉

학생식당 이용시 불편한 점은?

다른 대학 에선

한양대학교

최근 들어 '등투와 총선 기사와 관련하여 대학신문의 학생기자와 학교당국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신문사는 주간교수의 상업광고 게재압력과 노골적인 침해에 항의하며 지난 3월17일(화) 이후 '한대신문' 제작거부 상태에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7일자 861호 한대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광고대행사가 마땅한 광고가 없다며 여성속옷 광고인 에떠앙과 일본에 대한 기술 종속이 뚜렷한 한국샤프전자의 계산기 광고,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계산기 광고,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자를 사망케한 해태제과의 음료수 광고를 제시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불건전한 광고에의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주간교수는 광고 게재를 요구하며 계속 거부할시는 제작을 중지시키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한대신문 1면에는 '상업광고는 절대 실을 수 없습니다'라는 신문사 기자 명의의 자필광고가 실렸다.

한대신문사 기자들은 다른 형태의 기사인 광고지면에 건전광고를 게재할 책임을 학내 곳곳에서 선전을 하고, 편집권 침해에 엄중히 항의하고 있다. 또한 항시적으로 편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신문사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극복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의 '홍대신문'도 현재 제작중지 상태이다. 지난 3월 16일(월)자 687호 기사에서, 재단전입금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12일(목)에 있었던 등록금 협상에 관한 보고대회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주간교수가 기사삭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한 사회부기자를 해임시키기에 이르렀다.

주간교수는 학생기자가 지도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체제에 불순응하는 기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대신문 기자들은 18일(수) 아침부터 학내 선전전을 벌이고 대자보로 사실을 알렸고, 3월30일(월) 5시에 학생처장과 총학생회장, 기자, 주간교수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학생기자들의 요구는 원고 사전 검열제를 철폐하고 해직기자를 복직시키며 사설권, 광고지면에 대한 권한을 되찾고 상임기자를 임기제로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징검다리

도서관을 나의 서재로 활용하세요

개강한지도 한달이 되어가고, 이젠 학교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여유도 생기고 손에 쥐쥐 책이 잡히기도 하죠. 벌이 눈부신 창가에 기대 책장을 넘기는 친구의 손가락이 예뻐보입니다.

휴산여러분, 도서관을 여러분만의 서재로 활용하세요. 딱딱하고 지루하지만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를 열람하고 대출할 뿐아니라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 받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책, 그러나 우리 도서관에는 있지 않은 책을 신청하려면, 먼저 혹시 대출중인 책이 아닌가를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 열람목록에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는 열람과 창구와 각종 자료열람실에 비치되어 있는 '희망도서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3~4일 후엔 구입여부에 대한 회신을, 신청했었던 그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뭐 그리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죠? 보고 싶었던 좋은 책이 있으면 우리 도서관에 신청하여서 나도 읽고 친구에게도 추천해 주는 기회로 삼읍시다.

'92 국제하계대학 학생모집안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 감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대학은 이에 부응하고자 1990년에 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 매년 여름 방학기간중에 외국의 한국학 학자들과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국제 하계대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1992학년도 아래 주요 일정계획을 참조하시어 해외친지 및 교포중 입학 할만한 대상자가 있으면 본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간:1992년 7월6일—8월7일(5주간)
2. 대상:외국인 및 해외교포
3. 위치: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4. 하계대학 일정표
   - 5월 30일 ····· 원서 접수마감
   - 7월 6일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7월 7일 ····· 개강
   - 7월 17일—19일(2박3일) ····· 수학여행
   - 8월 5일 ····· 종강
   - 8월 6일 ····· 졸업시험
   - 8월 7일 ····· 졸업식

*주말에는 시내관광 및 유적지 탐방(비용은 수업료에 포함 되어있음)

5. 교육내용
   1) 한국어(초급, 중급, 고급):3학점
   2) 한국학:2학점
      1) 한국문학
      2) 한국역사
      3) 한국사회와 문화
      4) 한국정치와 경제
6. 입학전형
   1) 본 국제하계대학의 신청자격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로서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다.
   2) 신청 원서는 안내책자뒤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한다.
   3) 사진은 4×5cm의 크기로 한다.
   4) 원서접수 마감일은 5월30일이며 접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한다.
7. 경비:$1,725 (신청료, 수업료, 숙식비, 보험료, 기타)
8. 1992학년도 국제하계학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는 안내책자와 포스터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 연락처:(0335)33—1714, 30—4131/2

1992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대중투쟁 일구어낼 부정선거 규탄투쟁

공명선거에 관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14대 총선은 어느때보다도 심하게 불법·탈법선거 운동이 자행되었다. (사진: 말지)

안기부, 친여무소속 출마자에게 사퇴압력 가해

이지문중위 증언으로 군부정투표 실체 드러나

금권·관권으로 얼룩진 총선

그동안의 무수했던 불법·타락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여전히 내포한채 14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거대 여당의 무차별적인 금권·관권선거, 안기부의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투개표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개입, 군 부재자 부정투표등 실로 정권말기적 불법·타락선거행태들이 곳곳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냈다.

이번 14대 총선의 결과는 이러한 여당의 관권·금권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의 과반수의석확보 실패, '민주당'의 독자적인 개혁저지선에 가까운 의석수확보, '국민당'의 압승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 확보 등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민자당'은 수많은 불법·탈법선거를 일삼아왔는데, 통·반장들을 앞세운 대규모적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원으로의 이용, '유상군청' 총선전략 대외비문서와같은 정부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 손목시계를 돌리는등의 적극적인 금품·향응제공등으로 요약된다.

화인된바에 의하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의 향응제공과 식대제공, '민자당 거창지구당' 개편대회때의 현금살포, 명주·양양지구당 김문기 의원의 손목시계 돌리기등과 '민자당' 후보가 '민주당'후보의 이름을 도용해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르는 일까지 자행되었다.

또한 언론기관을 이용한 왜곡·편파보도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민자당'을 다른 정당에 비해 훨씬 오랜시간 보도하였는가 하면 'MBC규스데스크'에서는 노무현후보를 지역구관리에 소홀했다고 평가한 반면 허삼수후보는 "5공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거의 씻었다는 자신감" 운운했던 사실도 있다.

이러한 '민자당'의 대대적인 불법·탈법선거에 있어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여진다.

안기부의 선거개입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에서 만드시 '안기부'의 역기능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역할이 '전면'에서 '배후'로 바뀌었다는점 이외에는 그이전과 달라진 점이 별로없다.

'안기부'는 이번 총선 공천자 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김영삼 '민자당' 대표와 박철언의원간의 면담주선에 이어 김대표와 노재봉 전 총리간의 면담도 중재했다. 또한 '안기부'는 수많은 '민자당' 공천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실제로 '안기부'는 경북 안동군에서 가장 유력한 당선 후보자로 점쳐지던 권정달 전민정당 사무총장을 외국으로 쫓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노출된 '안기부'의 선거공작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친여무소속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포기 압력이고 둘째가 신생 '국민당'에 대한 탄압이었다.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5공 핵심인물중의 한사람인 정호용씨를 24시간 영업용택시를 이용해 감시하는가 하면 친여인사들의 '국민당'입당 방해공작, 현대그룹계열사들에 대한 자금유입 봉쇄등의 형태로 '안기부'의 정치개입은 이루어졌다.

이러한 '안기부'의 정치개입은 저물어가는 해로 비유되는 노태우대통령의 정권말기적 권력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안기부'라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군 부정선거사례

한편 이번 총선 하루전날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으로 터져나온 군 부재자투표의 불법성 등하기 어려운 점이다.

'공명선거실천 시민협의회'사무차장을 맡고있는 장신규씨는 "하루에도 1덕여건에 달하는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을 뒷받침해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것의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에서도 이번 군 부정투표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나갈 것으로 보이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에서는 지난 28일(토) 성균관대에서 군 부정투표 규탄대회를 갖는 등 그에 따른 파문은 선거가 끝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당'에서도 이러한 군 부정투표 사건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선거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군 부정투표 행위는 광역의회 선거에서 야당으로 몰표가 쏠린것에 충격을받아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계속해서 선전해오던 군에 다시한번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에도 이러한 '안기부'의 선거개입에 따른 안기부 해체와, 군 부정투표와 관련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동순 기자〉

외대만평

부메랑 효과

대학언론 탄압실태

학안대의 희생양 대학신문

대학신문이 또다시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개강과 더불어 연례행사 처럼 대학신문의 제작지연, 증지 사태가 발생했는데 올해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불어닥치고 있는 탄압의 양상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학교당국이 예년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나 서로 짜기나 한듯이 교육부, 제도언론, 학교당국이 한목소리로 대학신문의 체질개선을 들고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올해 대학신문의 파행 운영을 예견케 한 것은 고대신문사였다. 올해의 언론탄압 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끄는 예이기도 하다. 고대신문 제작중단 사태의 발단은 주간교수가 성적 불량을 근거로 편집장이하 5명의 기자를 해고 조치한데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작중단 사태의 파장이 홍기선 주간교수의 "체제개선안"이 폭로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데 있다.

제도권의 대표적인 체질개선 방향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홍기선 주간교수의 "체제개선안"은 40년간 이어져 온 현역기자 중심의 학생 편집국장제도를 폐지하고 부장이상을 전문언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이다. 이 안에는 이것외에도 대학신문의 기능 현재 대학신문의 문제점 진단, 앞으로의 개획 추진일정 등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기자들은 즉각적으로 이 개선안을 주간교수의 권한 확대와 독자들의 알권리, 비판할 권리를 박탈하는 "체제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대 총학생회 역시 이를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학원안정화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 학원민주화의 최대 쟁점시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고대와 같은 선상에서 문제가 되어 신문 발행을 못하거나 차질을 빚은 대학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덕성여대 등 5개사에 이른다. 이중 서강대, 연세대 두 대학은 학교당국이 학생기자들의 반발에 공식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어 신문을 제작하고 있으나 대학신문 편집권 갈등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최근 신문 제작이 중단된 사는 한양대와 홍익대를 들 수 있다. 한양대 "한대신문"은 지난 3월 17일자 861호 제작과정에서 속웃광고, 상업광고의 게재를 거부한 학생기자단과 게재를 요구한 주간교수간의 마찰이 발단이 되어 신문이 나오지 않고 있다. 홍대 "홍대신문"은 신문제작상의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주간교수가 일방적인 해고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 제작이 중단된 예이고, 세종대도 학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학교당국이 개강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주간교수 발령을 하지 않아 나오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예이다.

학보제작 중단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부와 제도언론의 태도이다. 교육부는 편집권 강등이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중순에 이에대한 파악과 대처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주요 7개 대학의 주간교수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총선 기사 자제를 지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기성언론도 마찬가지, 예년에 비해 훨씬 비중있게 다룬 기성언론들은 본질을 호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오보를 내는등(특히 서울신문은 대부분의 고대신문 기자가 성적불량으로 해고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공기로서의 기능을 망각하기 일쑤였다.

대학신문의 편집권 갈등이 근 시일내에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학신문의 독자들이다. 대학신문은 대학이라는 테두리내에서 학생을 주독자층으로 하는 대중지이다. 또한 대학신문사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이기도 하다. 곧 대학신문 편집권 갈등도 이들 대학신문의 독자인 학생과 교수, 직원 등 학원 3주체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이 학교당국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학생기자들에 대한 제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편집권 갈등의 해결은 대학신문의 독자인 대학인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김기헌
〈전 성대신문 편집장〉

가사의 눈

"휴/ 내이름은 없구나"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를 꼬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미등록이라는 죄명(?)으로 제적을 시키겠다는 거야"

지난 3월25일(수) 용인캠퍼스 총무처앞에 8백30여명의 '미등록 제적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어 학우들의 불안과 분노의 시선을 모았다. 그간 7차에 걸친 등록금 협상이 계속적으로 결렬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총학생회 구좌 납부율이 높아가면서 등록금 문제가 학우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대학당국이 발표한 이문·왕산 1천8백여명의 제적 예정자 명단은 마치 화약고에 던져진 불씨마냥 삽시간에 외대 학우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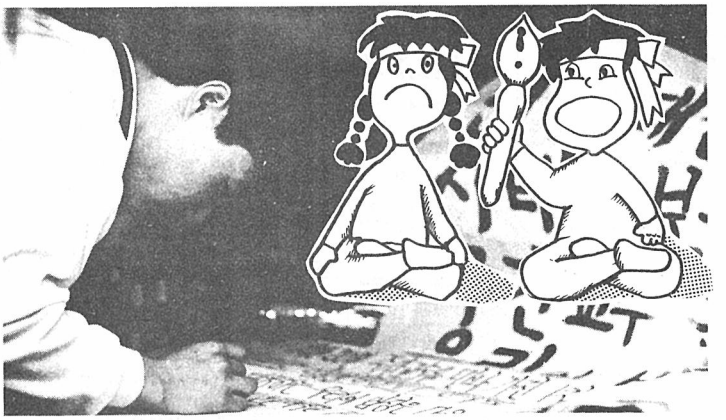
이에 대해 박수진(인문·철학2)양은 "대학당국이 제적자 명단 발표로도 부족하여 총학 계좌납부는 불법이며 26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는 전보를 보내 부모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학생회와 학우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날 대학당국이 발표한 제적예정자 1천8백명(이문동 1천명, 왕산 8백30명)중 총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우는 28일까지 9백5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대해 조수옥(충학 사무국원)양은 "1천8백명의 제적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대학당국의 추가등록 기간은 학기 1/4선인 3월28일로 끝이지만 '문교부 재학생 명수 보고기간'은 4월10일경으로 지금까지 마감날짜지 연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26일(수) 서울캠퍼스 교수회의실에서 총학생회·각 단대 주체·언론협의회 기자 등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외대발전을 위한 심야 토론회"가 열렸다. 등록금 협상과 외대 발전방안이 토론회의 주제였는데, 이는 학생참여 불가 운운하며 등록금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던 대학당국이 등록금 문제로 등록거부나 총학 계좌납부 투쟁을 벌였던 학생들을 제적 예정자로 발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문캠퍼스와 죽은 부지문제를 지적하고 학원이전과 이공대학의 의과대학·예체능대 신설을, 용인캠퍼스의 특성을 살린 지역학 개념으로 일부학제 개편, 외국학 연구센타의 조기착공 등을 들었다. 한편 이번에 대학당국이 미등록 제적예정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학생측의 요구들을 묵살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번 등록금 투쟁에 대해 총학생회장 이장욱군은 "92 등부는 예년과는 달리 단순히 낮은 금액 책정이 아니라, 외대의 본질적 모순 즉 외대발전에 관심이 없는 재단과 대학당국을 견인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류상준 기자〉

제살 갉아먹는 재단의 선택

"몸뚱이 내던져 정론을 지키겠습니다"



대학언론의 자율과 순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한대신문사기자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권력은 아니라 자본과의 싸움을 먼저 해야한다."

이시대의 논객이라는 김중배씨가 동아일보를 떠나면서 한말입니다. 기성언론이 얼마나 자본에 심하게 종속되어 있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말은 순수해야 할 대학신문에까지도 적용이 돼야 할 형편 입니다.

광고는 돈이다(?)

지난 3월 17일 한대신문제작시 주간교수는 성을 상품화한 광고와 외제상품 광고를 실으라고 강요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제작중지'를 시키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대신문기자들은 이를 단순히 거부하며 '상업광고는 절대 실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자체광고를, 급조, 게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대신문사의 파업은 기자들의 편집자율권 요구에 학교측은 학생기자의 광고개입금지, 주간의 기사관여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순수, 지켜야 합니다

기사와 상반되는 성을 상품화한 광고, 일제 상품광고를 싣기 거부한다하여 신문발행이 중단된 한대신문 사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학우들의 등록금으로 제작되는 대학신문이기에 광고도 기사와 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몸뚱이로 지키겠습니다

몸뚱이로 '정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학신문의 순수와 자율은 자본이나 그 어떤 이유로도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편집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한대신문사 기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승리 할 것입니다.

펜대신 매지, 원고지 대신 대자보를 강요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싸움은 정의롭기에 승리할 것입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 동부지구

보되기획

자주권 확보는 학자의 성패

학자위한 주체의 자주권 투쟁 필요

직선 총장제·협의체 구성 통해 자주권 확보

90년 세종대 투쟁은 자치권력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사진제공;세종학보사〉

Ⅰ. 들어가며

사람들은 자기가 치한 구체적 치지와 생활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요구를 '자주적 지향'으로 표출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자주적 지향은 계급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또 구체적 생활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생활적 요구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학원주체들의 자주적 지향은 학원생활과 관련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학원주체들의 자주적 지향 요구는 '자주성을 가진 자기해방 투쟁'으로써 교수, 학생의 학문연구활동과 교수활동을 통해 외화되고, 직원은 이들의 교수교양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원주체의 요구가 제기된다고 하여 학원의 모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기에는 교육환경과 교육여건 개선 등의 제반문제점들이 놓여 있으며, 학원자주화 투쟁은 사회가 민주화 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 학원 주체들의 자주적 권력쟁취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Ⅱ. 자주적 권력

한 국가에서 권력의 성격이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처럼 학원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원주체들의 자주적 요구에 기초한 이들 주체들의 민주화 열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돼야야 한다

학원주체들의 자주적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총장선출문제와 자주적 학원운영을 위한 운영기구의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자주적 총장선출

80년대는 정치, 사회의 독재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대학에서도 민주적 개혁이 학원 원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원의 사회적 지도역량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학원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 중요한 개혁의 하나는 대학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갖추는 일환으로서 행정의 최일자인 총(학)장을 학원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교수가 이를 직접 선출하는 일이며, 일개인이나 특정의 한 집단이 독점적인 지배통치력을 갖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더욱 발전하여 학원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총(학)장의 선출을 교수만이 아니라 학생, 직원 또한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른 정당성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학원 구성체가 주체적으로 학원 의사결정체제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됐으며, 한편으로는 총(학)장선출방식의 고민을 통해 각 구성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서로가 인정해야만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새로운 과제를 낳게 됐다.

자주적 운영기구의 제도적 마련

총장이 자주적 선출방식에 의거해서 추대되고, 학원 주체들의 생활적 요구와 자주적 지향을 실현할 의지를 가진 인물이 총장으로 추대됐다고 해서 자주적 권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자주적 학원운영을 위한 기구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제도적 보장을 받으며 각 구성체들이 학원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학원운영에 참여할 각각의 소기구 (학사운영 전담의 학생추진위원회, 교수협의회, 직원노조)들이 각각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원주체들의 연대의식 결여는 통일된 요구안을 내오지 못하는 부정적 작용을 했으며, 각각의 주체들이 사분오열됨으로써 서로의 역량을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세종대의 경우도 90년 학원자주화 투쟁에서 민주총장을 쟁투쟁과 대학발전위원회(이하 대발위)의 합법성을 얻기 위한 지난한 투쟁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와해와 위축으로 인하여 학생측의 조직만이 활동하는가 하면 89년 세종대 교육부(당시 문교부)감사에서 학직심임이 인되었다고 하여 불법기구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학생측은 대발위가 학원 주체의 최고 결정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제 주체들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 '민주연합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세종대의 대발위 건설은 자주적 총장이 추대되지 못한 학원에서 대발위는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자주적 총장이 추대되었다 하더라도 대발위가 확립되지 못한 학원에서는 그 또한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Ⅲ. 맺으며

대학 구성원 각각은 대학의 자주 민주화가 자신들의 여건이나 개선하고 이익이나 더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각 자신의 참된 개인적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 되어야 한다. 즉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나'를 발표할 수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과 이론을 특정인들의 이익과 힘 때문에 굽히고 숨기는 일들을 없게 하는 것이 민주화와 자주화의 숨은 뜻일 것이다.

현재 학원자주화의 장정은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의 수립주체인 교육부, 이와 함께 교육재정을 담당하는 사학재단, 학교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학부모·동문들을 주체로 하여 '민족사학 건설을 위한 공동협의회'로의 전환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학원주체들의 요구를 심의하는등 여러 현안 문제들에 관한 결의를 전행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처럼 각 학원의 사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학원자주화 움직임과 자치권력화보 투쟁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야 할 시기이다. 물론 학원주체들의 자주적 참여와 단결을 통해서 학원자주화를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한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각 학원단위 사이의 조직적 연대라 하겠다. 이것은 결코 현시기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하기 위한 소단위의 민주화 추진운동이며 대변혁을 위한 전원지로써 학원을 매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부〉

글 싣는 차례

1. 89년부터 91년까지의 동투평가
2. 교재투의의와 92년 교재투 정책논의
3. 올바른 학생요구안 작성을 위하여
4. 학원자주화 투쟁과 자치권력투쟁
5. 올바른 교권과 학생권의 자리매김
6. 교수·학생협의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모색

■학자위한 소기구 점검 〈복지편 Ⅰ〉

대생협 학복위

학자위한 물적토대 기구

자체적 수익사업 통해 외부 자본 유출 막아야

현재 본교에는 학내 복지전담기구로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있고, 용인캠퍼스는 학복위와 동급의 일을 수행하던 인권복지위원회, 현재 복화기구인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생협)이 있다.

대생협은 80년대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재건된 총학생회 사업에 있어서 대중운동에 대한 자기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학복위 단계부터 시작됐다. 당시 총학생회는 당면한 정치투쟁을 수행하면서 자칫 놓칠 수 있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실행할 기구를 필요시 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85·86년을 기점으로 학내복지사업과 권익사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학복위를 건설하게 됐다.

그러던 88년 6월20일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는 이들 학복위 연합체를 건설하고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대생협 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학복위를 시작으로 이제는 연합건설위원회까지 발족한 대생협은 사업방식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경제사업에 치중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의 수행과정을 보면, 학생들의 자주권 창출을 위해 학원에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회의 강화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학복위가 복화된 복지(대부분 경제영역)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조직적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대체로 이미 시행된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일반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과는 달리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학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객관적 조건(물적조건, 각 주체들간의 관계, 제단 및 교육부 등 외부요인)부터 복잡한 양태를 가지며, 운동성이 강한 '의식적'인 노력들을 통해 각 주체(교수·학생·직원)들이 생활속에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다. 이는 대생협의, '교수·직원들까지 조합원으로 수용한다'는 장기발전계획안 이기도 하며, 일반사회의 소비자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대생협은 학원자주화의 관점에서 학원내의 경제적인 영역을 해결하고자 하는 '틀'로써 건설됐다. 또한 자주적·민주적 운영의 원칙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학내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내 자주화의 물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해 나가는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현재 용인캠퍼스 대생협을 살펴보면 학생회관 구내식당 운영에서 부터 시작하여 여러 수익사업체와 매장관리에 있어 대학당국과 상당부분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식당운영의 경우 그동안 대학당국의 비협조와 시설부자의 미비는 지난 23일(월) 주방의 임금노무자들의 파업으로 표면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학기 학생식당을 보수하면서 하루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생협측에서 주방기구 확충을 대학당국에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대학당국은 "신강의동이 건설되면 이 건물 내에 대규모 학생식당을 마련할 예정이여서 현재의 학생회 관식당으로의 시설투자는 낭비"라는 입장 표명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강의동에 대한 건설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번 학생식당 파업의 경우 한 노무자는 "현재의 주방은 공간부터 너무 좁은 실정이여서 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임금이 일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생협측은 "대학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학내에 설치되는 수익사업체의 경우도 90년 당시 대학당국·업자·대생협 3자가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6·3사건 이후 대학당국은 노골적으로 계약권을 독자적으로 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도 학내 매장들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학생들의 수익사업이 학생운동의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진 대학당국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를 제지하려 할 것이고 그 첫번째 목표는 대생협 수익사업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퍼스 학복위도 자판기 운영권에 대해 대학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등록금협상은 학원자주화 추진에 있어서 올해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여지며 등록금 협상의 논의속에서 학생측이 학내에 진일적인 심의·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기둘 중 소위원회 형태인 대생협·학복위 또한 그 존립과 사업진행이 어느정도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당국은 등록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미룰 것이고 이를 통해 대생협과 같은 자치기구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당국의 움직임을 예상해 봤을때 학생측은 교수·직원까지 조합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직원노조측에서는 "적어도 2년의 준비기간은 있어야 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어 앞으로의 대생협측 사업진행은 그만큼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생협측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등 학내 소기구와의 상시적인 접촉을 통해 대생협을 각 주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올해의 등록금 협상에서 대학당국으로부터 확실한 지위를 보장받고 사업진행에 대해 싱실하게 협조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겠다.

〈이영환 기자〉

미봉책

○…대학수료예정을 알리는 괴벽보와 협박전보가 흡산을 분노케 했다는데.

지난 25일 대학당국은 '제적예정자 명단'을 발표하고 그동안 총학생회를 팍박 및 이주던 흡산을 제적 운운하며 돈없으면 그만두라고 협박하고 있어 한심.

옳은 일에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며, 밥힘수록 솟구친다는 사실을 그때들 대학당국은 또한번 각인해야 할 터.

○…돈당(黨)이 민초들을 이지럽히더니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14대 총선에서 미달제명될 뻔 했던 '국민당'이 예상밖의 우수한(?) 성적으로 원내 의석을 확보한 것이 그것.

돈으로 색칠하고 지역감정 부추겨 본성을 은폐하기는 했지만 그대들 돈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돈보다는 '피를 먹고 지라는 나무'인 것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일.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라는 말이 결코 먼 옛날 일만은 아닌듯.

총선 전에 온 힘을 다해 민자당을 밀어주던 언론이 민자당이 선거에서 대패하자 심지어는 '민자당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라고까지 해, 평소 간에 불었다 쓸개에 붙어다 하는 속성을 만천하게 공개방송.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변신보다는 폭풍우에 부러지는 느티나무의 고집을 제도언론은 각인해야 할 일.

○…외대발전 이제 흡산들 손안에 있소이다!

이문필 한 흡산의 기획대자보로 불붙은 외대발전에 관한 논의는 모든 흡산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새내기흡산 사이에도 회자되고 있긴만 귀를막고 눈을감고 사는 지 재단은 뒷짐지고 나몰라.

교육을 몸모로 대학을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재단께 크로니클자 왈, "외대가 좋아? 그럼 외대발전에 힘써!"

○…공명선거를 열망하던 민초들의 외침이 국방부의 두터운 벽에 부딪히 산산히 부서졌다고.

'부조건 어당을 찍어라' '내앞에서 찍을래, 기표소서 찍을래?' 군 부재자부표중 이이없는 명령과 협박에, 기표봉투까지 뜯어 확인하고 변조하는 일까지 횡행.

생전 처음 보는 '공개투표' 탄생시킨 나랏님 들으쇼/ "조용히 사죄하고 물러남네, 쭉박자고 내몰림래!"

시대착오

비둘기칠판

왕산골

■모두 함께 떠나요

·하얀공간 { 때:4월4일(토)—5일(일) 곳:대성리
·사진반 { 때:4월4일(토)—5일(일) 곳:남촌
·뜬컴 { 때:4월4일(토)—5일(일) 곳:세터
·A.L.A { 때:4월3일(금), 5일(월) 곳:치악산

■사랑을 느껴봅시다

따사로운 왕산의 봄기운을 사랑의 수화와 따스한 커피 달콤한 음료로써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때:4월8일(수)·9일(목)
곳:학생회관 휴게실

〈손말 사랑회〉

■소풍갑시다

때:4월16일(목)
곳:성남 탁아소 협의회 소속 4개 탁아소
70명 왕산으로 소풍갑시다.
참/ 1일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참동이 사랑회〉

동문회

(이문)

진선여고

때:4월1일(수) 5시
곳:대학원로비

(왕산)

광주문성고

때:4월3일(금) 오후 5시 30분
곳:학생회관 강당
※3기 복학생과 신입생은 필히 참석할것.

숭실

때:4월3일(금) 5시
곳:승차장 매점

이문벌

■모집합니다

화란어과 외대 발전 위원회 건립을 위해 집행요원을 모집합니다.

해당부서:편집부, 홍보부, 학술부, 문화부
기 간:4월10일(금)까지

〈민중승리 화란어과〉

■정치토론회

4월3일(금) 오후 5시
—대학원 소강당(6104)

4월5일(일) 오후 2시
—고대 대강당

주제:경제위기 누구의 위기인가?
선거대패 누구의 패배인가.

〈I·S·공대위〉

■44주기 4·3추모제

—억울하게 돌아가신 4·3영령들의 신원을 위하여.

때:92.4.1(수)—5일(월)
형식
1. 학 술 제—심포지움, 공동수업
2. 문화공연—마당굿, 민족문화의 밤, 슬라이드 상영, 그림·판화전시회
3. 추모제

행사일정

행사 \ 지역 \ 일시		1 (수)	2 (목)	3 (금)	4 (토)	5 (일)
심포지움	서울				○	
공동수업	각지역			○		
마당굿	제주				○	○
	서울					
문학의밤		○	○	○	○	
슬라이드	각지역					
전시	제주	○	○	○	○	○
	서울			○	○	○
추모제	제주			○		
	서울			○		

〈제주항우회〉

광고신청: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12호)

〈비둘기 칠판은 여러분은 광고입니다. 화우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2천년 위원회' 설립토론회 열려

서울, 25일 심야토론 통해 등투 승리 다짐

"본교 발전위한 구체적 조직건설 절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5일(수)오후8시 교수회의실에서 학생회 소속 간부와 일반학생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등투승리와 외대발전을 위한 심야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심야토론회는 그동안의 등록금투쟁에 대한 상황보고와 올해 등록금투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교양작업과 아울러 요즈음 제기되고 있는 외대발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 토론회를 통해 구체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제기됐다.

첫 순서로 진행된 외대발전을 위한 강의에서 강사로 나온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장욱(서양·노어4)군은 "우리 등록금 투쟁의 대상인 대학당국은 재단에 종속된 부력한 존재"라며 "외대발전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재단을 모든학생·동문 교수들의 힘으로 재단을 견인해 외대의 실질적 발전을 이루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구체적 대안으로서 "외대발전 2천년 위원회를 두어 캠퍼스이전, 재단전입금 확충, 학재개편, 대외이미지 개선, 동문들의 적극적 참여등 당면한 외대발전의 장애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두번째 강사로 나온 외대발전 후원회 자원봉사자 원치승(정과·정외4)군은 "이제 외대발전 문제는 미룰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뒤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의 건립, 상장기업의 육성등 외대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와 외대발전문제에 관해 단대별로 분임조를 구성하여 1시간여동안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작전성공! 2차 등록거부 투쟁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서울·용인캠퍼스 2차등록거부투쟁의 일환인 '총학생회 계좌 납부'에서 28일까지 총 1천70여명의 학생들이 학생회 납부에 동조했다. 이에 대학당국은 25일 '등록금 제적자'를 발표하는 등 학생측의 행동에 강경입장을 보였으나 오는 4월초까지는 미등록제적에 따른 행정처리를 강행하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캠퍼스 도서관 앞에 설치된 '이동 학생회'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모습이다.

〈강인숙 본보편집장〉

동연, 학생처 항의 방문

예산 미지급에 따른 유감표시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서는 동연소속 학생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목)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동아리재정문제, 분과장에 대한 장학금 미지급 결정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26일 엽립 예정이던 동연 해오름식 재정지원과 각 분과과정에 대한 장학금 지급요구에 대해 대학당국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논의하자"는 태도를 항의하기위해 열렸다.

이자리에서 동연장 박정근(영어3·언론문제 연구모임 노곳패)군은 "대학당국이 이제는 재정지원단절을 통해 학생처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당국은 하루빨리 해오름식 재정과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항의집회가 끝난뒤 동연소속 학생들은 학생처로 집결하여 학생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가량 항의 시위를 벌였다.

양캠 동연 '새내기잔치'열어

서울·용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별 동아리의 성격과 모습을 소개하는 공개모집기간을 가졌다.

서울캠퍼스 동연은 지난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새내기 공개모집 한마당'을 학내 전역으로 열고, 각 동아리 분과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용인캠퍼스 동연도 26·27일 양일간 '동연 새내기 맞이 큰 잔치'행사를 갖고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 첫날인 26일(목)에는 학생회관 앞에서 동연주최 '동연 해오름식'을 가졌다.

용인, '자율방범대'설치 요청

대생협차원 건준위 결성…학교협조 필요

용인캠퍼스 대학생환원동조합(이하 대생협)은 지난 20일(금) '왕산 자율방범대'(이하 자방대)건설에 관한 공문을 이창욱(독일어과)부총장 앞으로 띄우고, 대학당국 관련부서인 학생처와 총무처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방대 건설준비위원회(위원장 김동희, 아프리카어·3)는 이번 공문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특히 학생들과 주민사이의 폭력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 및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이와함께 "자방대 건설을 통해 학내 뿐만 아니라 지역방범대를 구성하는 등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자방대 건설은 용인캠퍼스 건립 이후 아직까지도 학내 도난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음을 봤을 때 조금은 늦은감이 있는 제안으로 보여진다.

현재 용인캠퍼스는 작년부터 야간에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차량통제문을 오후 10시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출입자에 대한 통제는 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방학 중에는 학내 도난사건으로 메학기 1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당국은 이번 자방대 건설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가장 큰 난점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일어나는 인원 선발과정, 급료, 장비 등 부수적인 문제점과 학내에 위치한 기숙사 사생들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자방대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서울캠퍼스 '외대사랑 순찰대'는 기존에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해 왔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잠시 중단된 이후 총무처가 인원을 선발하고 학생처에서 급료지불 및 관리 등을 하면서 대학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용인캠퍼스 자방대 건설 또한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사감·주방노무자 마찰 발생

사감 폭언에 항의…사과로 일단락

용인캠퍼스 기숙사 주방노무자 10명은 지난 25일(수) 저녁배식 때 기숙사 남학생 사감장 육성수(체육담당)교수의 폭언 등의 행동에 맞서 26일(목) 파업을 결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저녁배식 당시 육교수가 "식사의 질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며 외자 등을 내평계치는 등 폭언과 과격행동을 함으로써 시작됐다. 이에 대해 주방노무자들은 "정식 사과하지 않을 시 파업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운영과로 찾아가 강경항의 했으며 이에 육교수가 사과를 하여 사건은 일단락 됐다.

주방 한 노무자는 "이번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육교수의 폭언행동이 몇차례 있었다"며 "교수로서의 품행을 저버리는 행동은 앞으로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교 부혜진 재연행

26일 구속확정

지난 3월4일(수) 국제사회주의자들(IS)그룹 사건 관련으로 연행돼 불구속으로 풀려났던 본교생 부혜진(서양·독어4)양이 안기부 직원으로 알려진 2명에 의해 3월24일(화) 집에서 재연행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혜진 양이 불구속입건후에도 계속해서 IS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참가했음을 들어 지난 3월26일(목) 정식 구속했다.

올해 교생실습 4월실시

본교 2백71명 실습예정

올해 본교 교생실습 수강희망생에 대한 교육실습이 1차로 4월6일(월)부터 5월2일(토)까지, 2차로 5월4일(월)부터 5월30일(토)까지 서울배명고, 휘경여고, 경문외국어고 등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차 교생실습은 본교생 2백43명이 참가하여 휘경여고, 배명고 등의 98개고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본교생 28명이 참가하는 2차교생실습은 경문외국어고 등 9개고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생실습 희망자를 각 과별로 살펴보면 △서울캠퍼스 영어과 38명, 영어교육과 31명 불어과 10명, 불어교육과 24명 독일어과 5명 독일어교육과 26명, 한국어교육과 26명, 서반아어과 12명, 중국어과 11명, 일본어과 20명, 경영학과 3명, 무역학과 5명 △용인캠퍼스 영어과 13명, 불어과 4명, 독일어과 7명, 서반아어과 8명, 중국어과 3명, 일본어과 6명, 수학과 5명, 물리학과 3명, 화학과 5명, 전산학과 5명, 천학과 1명(양캠퍼스 합계 2백 71명)이다.

한편, 교생실습 대상고교의 부족등으로 인해 본인의사에 따라 교생실습 희망생중 불어과 7명과 독일어과 5명은 전공과는 무관한 다른과목을 실습하게 됐다.

이사람

"80년대초 까지만 해도 '명문'임을 자부했던 본교가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외대발전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생각에서 외대발전에 대한 기획대자보를 쓴것이 뜻밖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중순 서울캠퍼스 대자보판에 "외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외대발전을 위한 제언Ⅰ·Ⅱ"를 기획 대자보화 하여 본교발전계획에 대한 대략적 청사진을 밝힌 바 있는 박상남(서양·노어4)군의 말이다.

현재 본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80년이후 증축된 강의실 건물이 한계도 없는가 하면, 학교차원의 대외 홍보부족, 비좁은 캠퍼스, 재단의 대학발전에 대한 부관심 등의 산적한 문제로 인해 대학발전이 정체되고 타학교와의 경쟁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외대발전침체의 위기의식에 대해 박군은 "이제 외대의 상황은 정말 대학이라고 조차 부를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정말 외대가 명문임을 자부하기 위해서는 외대발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외대인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박군은 외대발전에 대한 대략적 계획으로 "캠퍼스 이전을 통한 교육시설의 확충, 외대의 특성을 살린 교과과정의 개편,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개편"을 주요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본교가 명문임을 자부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체 기획대자보로 본교 발전계획안을 제시한 박상남 군을 만나〉

현재 양캠퍼스 총학생회에서도 이번 등록금투쟁을 인상률 피센트의 으르내림에 연연하지 않고 대제단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외대발전을 이끈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총동문회에서도 재단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외대발전후원회'를 구성했고 대학당국도 대외 이미지 홍보를 위해 총장직속 홍보실을 설치하는 등 재단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외대발전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박군은 요즘의 반재단투쟁과 외대발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대해 "학교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의지와 애착이 없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교육을 이용하는 재단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재단에 대한 무성실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단의 양심적인 무자 또한 촉구했다.

그동안 본교 재단이 모든 외대인들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학교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비단 박군 한사람의 생각은 아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방안은 박군의 말처럼 재단을 사학발전의 길로 견인해 냈수 있는 민주적 심의지구를 구성함때 외대발전은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군은 "무엇보다도 학교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교심을 바탕으로한 외대인의 노력"이라며 "이번 외대발전시설은 일시적·미봉적 사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 전망을 세워가는 거시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로 말을 맺는다.

〈노재봉 기자〉

학과움직임

◎서울 중국어과, 원어연극 춘향전 공연

서울캠퍼스 중국어과에서는 오는 4월4일(토), 5일(일) 양일간 오후3시, 6시30분 두차례에 걸쳐 서울예전내 남산드라마센터에서 원어연극 '춘향전'을 공연한다.

동아리 소식

◎서울 팬플루트반, '제1회 팬플루트 정기 연주회'개최

서울캠퍼스 팬플루트반 '시링크스'에서는 오는 4월2일(목) 오후6시 노천극장에서 신입생을 위한 팬플루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서울 산악반, 장비전시회 개최

서울캠퍼스 산악반에서는 등산에 필요한 장비일체를 전시하는 '장비전시회'를 이제(30일)에 이어 오늘(31일)까지 학생회관앞 잔디밭에서 갖는다.

학생생활 연구소 대인교육 상담 개설

서울캠퍼스 학생생활 연구소에서는 본교생을 대상으로 3월말부터 5월말까지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지난 16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2차외시 합격발표

조재현군등 3명

본교 외시연구실은 지난 3월25일(수) 제2차 외무고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본교 출신의 합격자는 조재현(동양·베트남어 81), 김용길(정과·정외 85), 이종렬(동양·마인어 87)군등 모두 3명이다.

대생협, 직원노조측과 '3자생협'논의 가져

용인캠퍼스 대학생환원동조합(이하 대생협)은 지난 27일(금) 직원노조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생협의 조합원 가입에 있어 교수·직원도 참여할 수 있는가를 타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생협측 대표로 참석한 사무국장 김동희(동학·아프리카어 3)군은 "교수·직원들의 조합원 가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3자 대생협'을 구성할 방침이므로 직원노조측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인캠퍼스 직원노조 대표로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구성체의 건실보다는 추구하는 목적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英·日·中·独·佛·西語
고려 외국어 학원
외국어교육의 센터
BE WINNERS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Placem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동일 Level로 구성된 12명 정원제
●엄격한 학사관리
●TESL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 1-3, 토1-4타시간
I CAN DO
PAGODA
LANGUAGE SCHOOL
종로·2가 파고다공원건너편 274-4000
강남 쉽구장역 동호대교밑 515-4020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경영현장의 값진 체험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경영학은 미국에서 발달된 학문으로 사회적 전통이 다른 우리나라 기업경영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은 선경그룹 최종현회장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요령을 실무차원에서 가식없이 풀이한 것으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경영인이 되고자하는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될것입니다.
주요내용
• 기업감망에는 원칙이 있어야한다
• 남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해야 돈이 벌린다
• 무리한 만들수 있는 상품은 불황을 모른다
•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
• 첨단기술만이 기술이 아니다
• 상식적 발상은 상식선에 머문다
• 클로벌리제이션에 대비한 경영전략
• 부록으로 첫공개되는 선경의 독창적인 경영기법 SKMS(Sunkyong Management System)
발행 : 한국기업문화연구원 (711-2876)
많은분들의 문의전화가 있었습니다. 책의 총판은 을지서적 (전화 : 757-8991~5) 이며, 지금 전국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뇌의 업(業) 손의 무(務)

연·재·수·필

〈뒷이야기〉

부모님이 쪽박을 차고 짚신을 끄는 대신 저희 학교의 재단은 더 큰 호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그래 수업료니 강의료니 줍스럽게 물려 말하지 말자. 그저 돈이라 하자—돈 안낸 놈이 그 비싼 수업을 듣고, 학교 '재산'인 화장실을 돈도 안내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사용하고—나는 빈뇨증이 있다—도서관 책걸상에 감가상각을 유발시켜도 외대의 재단에 돈도 내지 않는 놈이 버젓이 학생신분으로 거리를 활개치고, 소주집에선 미등록 학생증을—말하자면 부도 수표를—내밀거도 책소리 않는 '그들의' 몹쓸 교칙—그래 집대재단의 어느 누구도, 학교의 제관계자도 아닌 무생물인—은 학교로 봐서는 동산에 해당하는 한 권이 책이 '불순한' 놈들의 손에 단 일주일이라도 잠모로 잡혀 있는 것은 집대 살가한 일이나 무형의 상징인 상의나 메갈수도 없는 무동산인 화장실쯤, 오일된 미등록자에 의해 도용당해도 그만이라는 기특한 소리를 내뿜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서로 농담을 그치자. 다른것도 아니고 책을 담보로—고약한 당근의 하나로—우리들의 등록을 체책질하지 말라. 같이 갈거면 먹이고 입히고 매로는 어루만져 줄 생각도 하자. 적어도 교칙을, 법을 들먹일 요량이면 도덕도 순리도 생각할 줄 아는 상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면 아예 학생들을 쫓아라—그들이 배일 아침저녁 들고 다니느 것이 남부를 위한 돈가방이 아니라 하문의 책가방 일진대!/

아예 학생을 쫓아라—그들이 그들 신체의 최고 상층부에 장착하고 다니는 것이 등록을 위한 금덩이가 아니고 이성의 냉철한 머리일진대!/

허 그것 참 일에 따라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른척해야 할 때도 있고, 머리가 하는 업(業)과 손이 하는 무(務)를 구별해야 할때도 있느니, 언젠침 학문의 요람이요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나갈 외대에서 대양은 고사하고 실개천같은 쨰쨰함으로 머리가 하는 담구의 업(業)과 손이 하는 등록의 무(務)를 고의로 혼동하려 들다니. 에잇, 배운 것도 많고 가진것도 없는 분들의 고로지 못한 심사하고는./

경고:책가지고 장난하지 마시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면서 다음으로써 긴 감설을 정리하고자 한다. 부모님, 많이 배우시지 못하고 아주 조금 밖에 배우시지 못한 부모님. 세상살이에 학위가 필요하지 그 한학이니 불교니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님, 한학이나 불교적 덕식 따지다면야—에 돈으로가 아니고요, 학위따린 관두고요—자식 교육열로 따진다면야—에, 물론 허황된 명예로가 아니고요—우리 아버님이 대학 총장님이시요. 우리 아버님이 문교부 장관 이시지요. 아무렴요. 아 까짓것 이 판에 아버님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도 외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버님, 뙤약볕에서 수십년을 쩌면서 걷더온, 몹쓸놈의 자외선으로 검게 그을진, 아니 까맣게 타버린 아버님의 면모는 아버님이 키워낸 자식같은 생명이나, 생명같은 자식에겐 사랑이고 정일지는 몰라도, 눈물이고 희한일지는 몰라도 단 한번이라도 금빛 찬란한 사치이고, 명명거리는 허세이고 꿈에라도 한번 쩨쩨하게 등록금때문에 자식을 혼줄내 놓고 등록금에 다 덕하니 대학 발전 기부금으로 돈 천만원 정도의 '잔전'이야 우습게 내고 싶은 '거만'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외려 아버님은, '쓸모있는' 경제학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학(善學)에 담뿔해오신 아버님은 까짓뽀! 18%가 두렵습니까. 1백80%가 무섭습니까. 아버님,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18%면 백만원이 넘는다는 소립니다. 안내면 책도 빌려주지 않는답니다. 글쎄, 책은 고사하고 조금더 허튼짓하다간 제적될 지도 모른답니다.—심장이 약하신 부모님께 이 말씀은 차마 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제로 심 사회'라는 요상한 이름의 책을 리트이의 말을보다 이려운 연기를 써로우라고 부르기 위해 하셔야 합니다. —한 사회 일부의 이득은 다른 곳에서의 그만큼의 손실을 요하는 것이므로 사회전체적으로는 제로—에 이건 아버님이 간신히 알고 계신 꼬부랑 말입니다만요—가 된다는 실감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비록 아버님이 18%이니라 1만8천% 인상된 등록금을 못난 자식을 위해 내서도 펑생을 못입고 못먹고 자식만 보고 살아온 아버님, 어머님이 오히려 자식때문에—에, 다른 누구때문도 아니고—더불어 쪽박을 차고 거리고 내 몰리신다해도 고단해 하시진 마십시요.

정희로우신 아버님, 따사로우신 어머님, 부모님이 쪽박을 차고 짚신을 끄는 대신 저희 학교의 재단인지 제단(신전)인지 하는 곳의 말쑥하고, 부모님보다 고령이신데도 훨씬 젊어뵈는 고귀한 분들은 지금까지 누려오던 호사보다 더욱 큰 호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제로심사회는 이윤적 말로 쌤쌤이라는 소리가 되고 아버님의 주머니돈이 우리—아니 우리라는 말은 이제는 쓰지 않기로 해요—학교재단의 쌈짓돈이 되므로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되는데, 아 글쎄 그놈의 쌈짓돈이 아버님의 주머니로 돌아갈 일은 절대로 없는 기막힌 사정을 유식하게는 가적의 하방경적성이라고도 하고 삼무압힐상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레스터 써로우라는 학자는—아버님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외려하지 마십시요. 생전 해보신 적이 없으신 이쁜 사이에 허 끝을 빼물었다 도로 집어넣는 경박한 몸짓을, 산스크리트어의 말을보다 이려운 연기를 써로우라고 부르기 위해 하셔야 합니다. —한 사회 일부의 이득은 다른 곳에서의 그만큼의 손실을 요하는 것이므로 사회전체적으로는 제로—에 이건 아버님이 간신히 알고 계신 꼬부랑 말입니다만요—가 된다는 실감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비록 아버님이 18%이니라 1만8천% 인상된 등록금을 못난 자식을 위해 내서도 펑생을 못입고 못먹고 자식만 보고 살아온 아버님, 어머님이 온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못난 녀석은 뒤로 자빠져도 룻구멍에 자갈이 박힌다더니, 올화가 칙멓이 대출도 못한 책을 용변도 참아가며 몇시간만에 꼬박 읽고 펑소보다 늦게 도서관을 나서니 때마침 빗줄기가 침침해진 눈을 때립니다.

어쩌필지 모르니까 등록거부 기간이나마 온전히 끼니를 채워가시길.

부디 강건하소서.

김 영 웅
〈법·법학4〉

잘 다듬어진 글을 원하진 않습니다

교정에 활짝 핀 개나리꽃도 밤낮게까지 잔디밭에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또한 낯설지 않을만큼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봄을 맞으며 외대 학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슴 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외대학우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렵니까?

잘 다듬어진 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고뇌가 있고 진실이 담겨져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진지한 삶이 담긴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시, 소설, 콩트, 일기문, 서간문, 영화평, 연극평, 기타 공연평(각 10—12매), 단편소설(40매 내외)등 어떤 형식의 글이라도 좋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지금 곧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문화부로 찾아 오십시요. 반갑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수필

삶을 일깨워 준 소중한 이에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라는 부제가 붙은 김환기의 그림이 있다. 커다란 캔버스 위에 투수한 사각형과 둥그라미가 가득 채워지 있는 이 그림은, 작가가 외국에 있을때 고국에 두고온 이들을 그리워하며 그린 것이라 한다. 동그라미 하나하나에 그리운 이들을 떠올리며, 애수와 회한에 젖은, 감정 표출의 집합체인 이 그림! 결국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된 생활 속에서, 서로 쥔 더 그리워하기만을 바라며 사는 것은 아닐까?

대학이라는 사회에 들어온지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졸업만이 되었다. 학문탐구의 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 대한 예비적 사회라고 생각했기에, 학과공부도 동아리 생활도, 그리고 학회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을 친 지난 날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바람직한 사고관의 구축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시간들…….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치관을 재정립하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번민과 갈등. 시대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스스로의 안타까움과 나름대로 소신있게 자신의 삶을 꿋꿋이 꾸려 나가는 타인에게서 느낀 생동감과 책임감.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감히, 나의 삶의 좌표가 설정되었노라 단언할 수 있게 되었다.

"성실과 진지함,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 주이진 환경을 탓하는 나약함 보다는 그것을 자신있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려는 데서 수행되는 진지함과 성실, 또 홀로 존재하는 삶이 아니기에, 상호이해와 상부상조의 생활이 되어야 하기에, 이렇게 설정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약간은 화사하다 못해 호사스러운 듯한 분위기의 신입생들과 학우들에게서, 고지식할지는 모르겠지만, 당혹감과 더불어 다소의 우려감이 드는 것은 한낱 기우일까?

"예술이란 강력한 민족의 노래인 것 같다. 세계적이기에는 가장 민족적이어야 한다"라고 자신의 예술관을 간결한 문구로 표현한 김환기의 작품 소재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둥근원, 구비구비 치솟는 산봉우리들, 뒤틀리며 꿈틀거리는 소나무들, 들이 있고 물이 흐르며 구름이 뜨는 모습, 욕이 긴 사슴들이다. 그는 이런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표현해 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외대생의 고유색은 어떤 것일까? 개개인의 열은, 그러나 독특한 색들이 결국 우리의 고운 고유색을 풍길 수 있을 때, 소속감과 생활의 의욕이 더 굳건해 지지 않을까 싶다.

사실 내겐 이런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준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정인지 사랑인지, 정이란 단어로 공유한 많은 시간들. 불현듯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잡은 그의 존재.

인간적인 많은 것들, 사회·세계·문화·예술에 관한 무수한 화제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추구방법의 동일함에서 오는 공통된 시각이 서로를 더 가깝게 한 것이라 여겨진다.

사랑이란, 평행선이라고 누군가 그랬다. 두개의 평행선이 결국 합치가 되는 그런 선. 시간과 노력과 이해와 배려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평행선.

자신의 존재 필요가치를 자신에게서 느끼는 일이 거의 없는 반면, 타인에게서 그런것을 확인할 때, 이런 것이 행복감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경험하게 되었다. 내게도 이런 절실하고 애틋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아마, 이런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정이겠지만 모두가 서로의 존재가치를 확인해 주고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이제 막바지 꽃샘추위도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왔다. 신록의 계절이 곧 다가섰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할까? 꾸준히 성실하고 진지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야겠다. 봄햇살을 한껏 받으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외대인들 모두도 하루하루 진지하고 성실한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가꾸어 나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혼한 말일수도 있지만 처음 사용해 보는 '사랑한다'는 말로 내 삶을 일깨워 준 그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

김 현 희
〈서양·불어4〉

문화 응답샘

그리고 내일이 있다
—정도상 지음

한 대학의 '제3경제연구회'라는 동아리회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민학운동의 길에 들어섰지만 가족의 반대, 정권의 탄압, 그 짓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동지에 대한 아픔 등으로 고민하는 이들의 모습을 깨끗한 필치로 그렸다. 온갖 이려움에도 인간해방의 꿈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변혁의 주체로 당당히 서가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한다.

〈아침펴냄 값4천4백원〉

요즈음 어떻게 지내세요?
—최성혁·최규승 지음

양담배, 커피, 수입바나나, 직배영화. 이제는 그 뿌리도 못찾을만큼 우리는 제국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이 책은 민족정신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생활문화글모음집이다. 문화적 침투를 꾀하는, 혹은 그에 협조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우리 민족문화를 기이이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글이다.

〈이웃펴냄 값3천6백원〉

역사에세이
—장수한 지음

올바른 역사란 역사를 인류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어야 한다.

이 책에선 왜곡된 역사교육 속에서 보아왔던 특정인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가 아닌 바로 민중자신의 역사로 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지침이 될것이다.

〈동녘펴냄 값4천원〉

마당극 '공해 공화국'
—극단'현장' 주최

연극을 통해 노동운동을 해온 극단 '현장'이 '공해추방연합'의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일상의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이색마당극 '공해공화국'을 4월1일(수)부터 15일(수)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공연한다.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과 식품공해, 핵문제등을 전통적 탈춤 구조로 공연하며 관객과 배우가 함께 신명을 돋구게 될 것이다.

▲입장료:5천원(예매:4천원)

▲연락및 문의처:예술극장 한마당(743—1266)

제주민중행사—강요배의 역사그림전

제주 출신의 서양화가 강요배씨가 4·3항쟁을 연작형식으로 다룬 '제주민중항쟁사'를 담은 그림을 4월3일(금)부터 11일(토)까지 학고재화랑에서 전시한다.

고려시대 삼별초 항쟁에서부터 제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저항과 외침이 그림 한장한장마다 아프게 중언되어 있다.

▲연락및 문의처:학고재화랑(739—4937)

자! 오늘 비상학생총회로 결집합시다!!!

이제 등록금 투쟁 완전승리의 큰걸음을 내딛읍시다

등록금 투쟁의 완전승리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왕산 5천 학우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비상학생총회에서
다시금 5천학우의 결의를 다지고
반드시 등록금투쟁의 승리를 안아 옵시다.

●일시:1992년 3월 31일(화)
●장소:해방광장

제/13/대 일/대/도/약 총/학/생/회